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 8. 10.(월) 09:30
배포일시	2015. 8. 10.(월) 09:30
담당부서	통계정보국 정보서비스팀
담당자	과 장: 성기도(042-481-2411) 사 무 관: 황병호(042-481-2420)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올해로 뜻 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 국민의 삶의 변천을 통계를 통해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부문의 110개 주요지표, 167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광복 70년 경제·사회·환경 통계’에 대하여 시계열을 1945년 광복 당시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급하여 수록하였으며, 주요국들과의 국제비교도 포함하였다.

특히, 광복 70년을 통계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관하면서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웰빙, 국가발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표에 대한 해설을 가미하였다.

* 주요내용은 보도자료와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 광복당시의 통계자료는 자료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혹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현상에 국한된 것이 많으며, 조사방법과 작성기준이 현재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통계이용에 착오 없기 바람
- 본 책자의 내용은 통계청 ‘2014 국가주요지표’를 근간으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해설편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요약편과 통계편으로 구분하여 편집·발간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최대한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발굴하여 연도별 비교하였으며, 비교기준이 상이하거나 년도 중간에 기준이 변경된 것은 최대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년도에서 수록 및 기술함
- 동 간행물에 대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온라인 간행물’ (주제별/종합간행물) 코너에 등재할 예정(8월말경)이오니 많은 이용바람
-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들 지표에 대한 해설편·요약편(Ⅰ)과 통계편(Ⅱ)을 각각 별권으로 수록·발간하였음
- 이 책자가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많은 이용자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목차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요약)	5
---------------------------	---

I. 경제부문 7

1. 경제규모 및 성장률	7
2. 재정	9
3. 대외거래	11
4. 산업, 금융	13
5. 고용, 노동	16
6. 소득, 소비, 물가	18

II. 사회부문 20

1. 인구	20
2. 가구와 가족	24
3. 건강	26
4. 교육	32
5. 문화와 여가	36
6. 주거	40
7. 교통	42
8. 안전	44
9. 사회통합	46

III. 환경부문 49

1. 생활환경과 오염	49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50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요약)

〈경제부문〉

-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현재 1,485조원으로 1953년 477억원에 비하여 31,000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조 4,104억 달러로 세계 13위
- 1인당 GNI는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만 8,180달러로 증가,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은 둔화
- 농림어업의 비중은 1953년의 48.2%에서 2014년의 2.3%로 급락,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계기로 제조업의 비중은 1953년 7.8%에서 2014년 30.3%로 증가
- 수출 1위 품목은 1960년에는 철광석, 1970년에는 섬유류, 1980년에는 의류가 1위였지만, 1992년부터는 반도체가 1위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에서 2014년 51.1%로 증가,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 232시간에서 2014년 187시간으로 감소

〈사회부문〉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명으로 1949년 대비 2.4배 증가, 체류 외국인도 2013년 158만명으로 1948년 2만명에 비해 79배 증가
- 평균가구원 수는 1952년 5.4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절반으로 감소
- 기대수명은 1970년에 61.9세에 비해 2014년 81.8세로 지난 44년간 약 20세 증가
-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 특히 대학생 수는 1952년 3만명에서 2014년 213만으로 대폭 증가
- 1946년 약 1천대에 불과하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 총 1,57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

〈환경부문〉

-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대부분 환경기준을 달성

I 경제부문

1. 경제규모 및 성장률

■ 2014년 국내총생산(GDP) 1,485조 원으로 1953년 경제 규모에 비해 31,000배 이상 확대

- 명목 GDP, 1953년에서 2014년 사이 31,000배 이상 확대
 - 명목 GDP는 1953년 477억 원에서 2014년 1,485조 원으로 증가
- 2014년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 달러로 환산한 201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4,104억 달러로 세계 13위임
 - 2014년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는 15개뿐임

명목 GDP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명목GDP(10억 원)	47.74	249.84	2,794.8	39,471.3	197,712.3	635,184.6	1,265,308	1,485,078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014년 각국 명목GDP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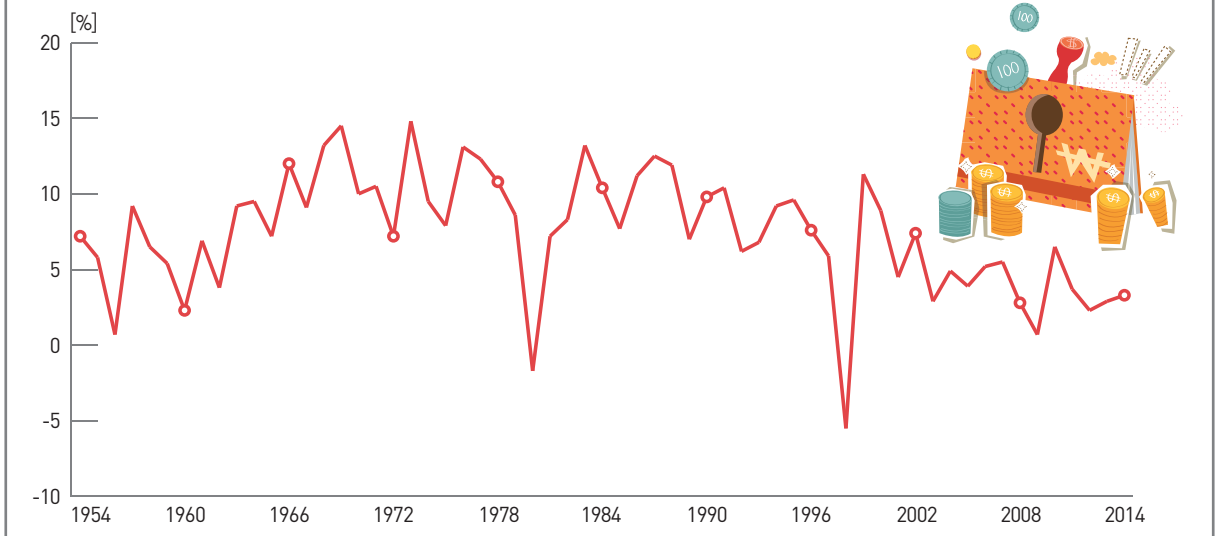
순위	국가	명목GDP(백만 달러)	순위	국가	명목GDP(백만 달러)
1	미국	17,419,000	9	인도	2,066,902
2	중국	10,360,105	10	러시아연방	1,860,598
3	일본	4,601,461	11	캐나다	1,786,655
4	독일	3,852,556	12	호주	1,453,770
5	영국	2,941,886	13	한국	1,410,383
6	프랑스	2,829,192	14	스페인	1,404,307
7	브라질	2,346,118	15	멕시코	1,282,720
8	이탈리아	2,144,338			

출처 /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ranking-table>

■ 실질 GDP, 1953년~2014년 사이 연평균 7.3% 성장

- 실질 GDP, 1953년~2014년의 61년간 연평균 7.3%씩 성장
 -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으로 1961~1991년의 30년간 연평균 9.7%의 고도성장 달성
 -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4% 정도의 성장률을 보임
 - 2014년 성장률은 3.3%로, OECD 회원국 평균 1.7%보다 높음
- 1953~2014년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해는 1980년과 1998년 두 번
 - 1980년에는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7%,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5.5% 성장률을 보임

경제성장률



출처 / 한국은행 6년 간격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만 8180달러로 증가

- 1인당 GNI, 1953년 67달러에서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각각 돌파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한국의 2014년 1인당 GDP는 3만 4,356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만 8817달러)의 88.5%임

1인당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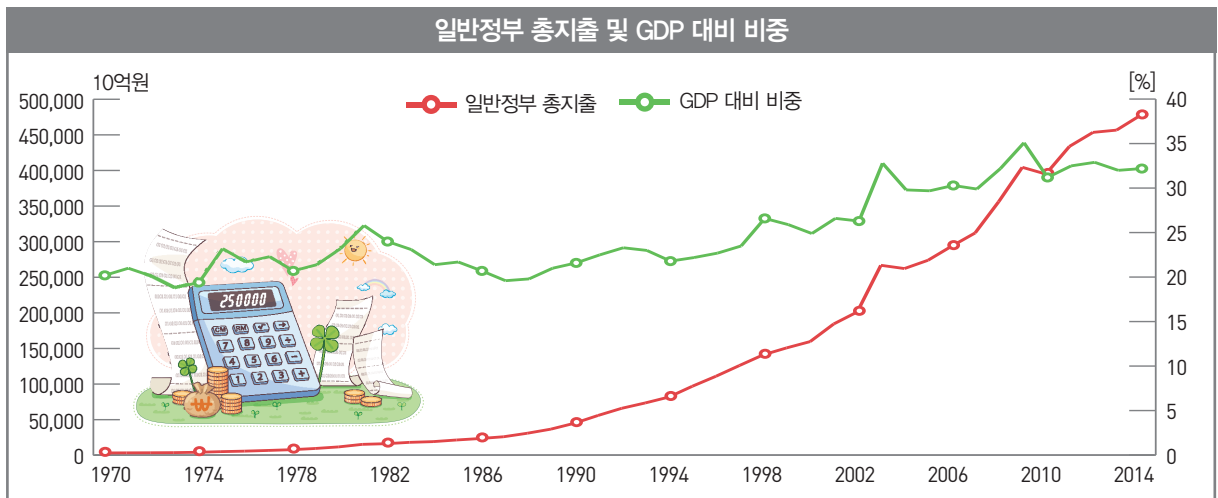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1인당 GNI(달러)	67	80	257	1,686	6,505	11,865	22,170	28,18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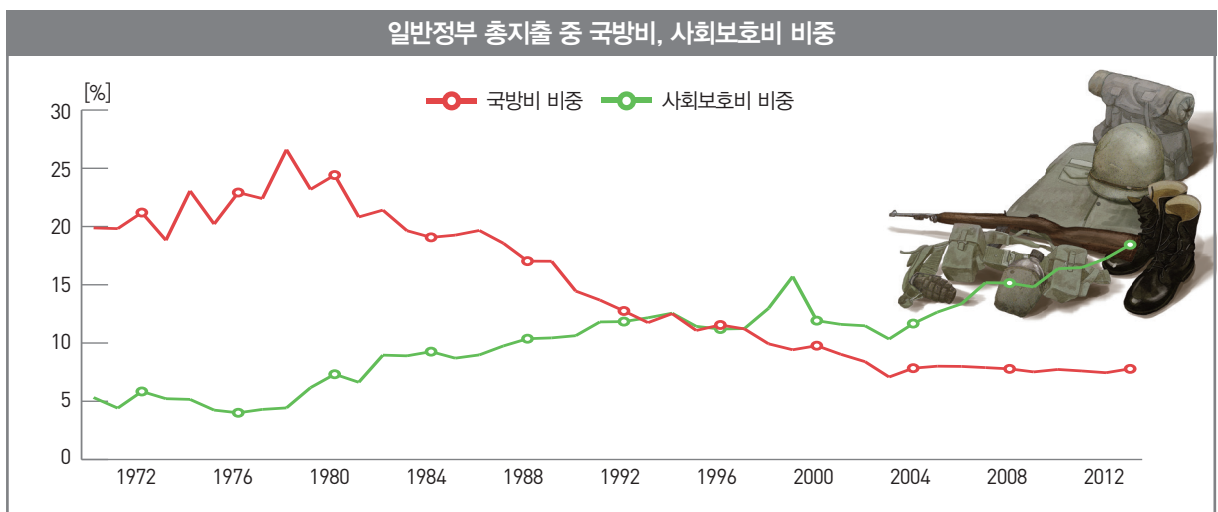
2. 재정

■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1970~2014년 사이 20%선에서 32%로 증가

- 일반정부 총지출 1970년 GDP대비 20%에서 2014년 32%로 증가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총지출, 1970~2014년 사이 5,578억 원에서 474조 원으로 증가. GDP 대비로는 20%에서 32%로 증가
 - 국방비 지출은 1970년 총지출의 20%에서 2013년 8%로 감소, 사회보호는 5%에서 18%로 증가
- 일반정부 재정 적자에서 1983년 이후 흑자로 전환
 -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일반정부 재정은 대체로 적자. 1981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달하기도 함
 - 1983년부터 대체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흑자폭은 18.6조원.
 - 2014년 일반정부 재정은 흑자 18.6조원(GDP 대비 1.2%)으로 건전한 편이나, 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은 22.5조원 적자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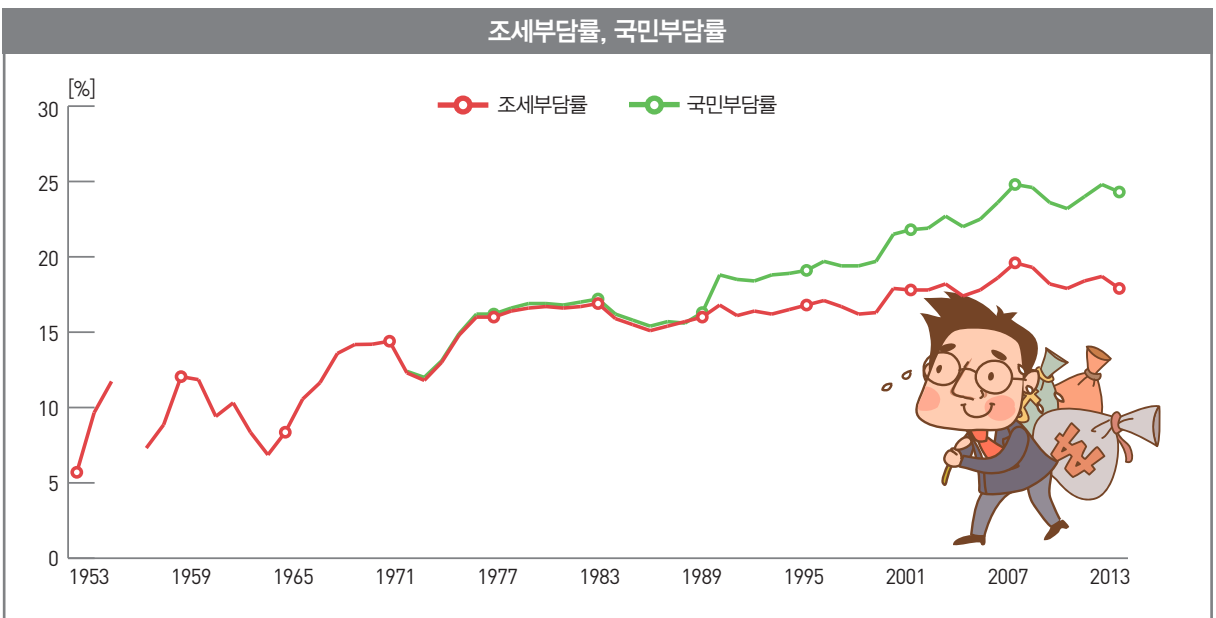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1953년 조세부담률 5.6% → 2013년 조세부담률 17.9%

- 조세부담률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증가
 - 1953년 조세 총액과 조세부담율은 각각 27억원과 5.6%였음
 - 2013년에는 조세 총액과 조세부담율이 각각 256조원과 17.9%로 증가
- 국민부담률 1972년 12.4%에서 2013년 24.3%로 증가
 -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 수입의 GDP 대비 규모)은 1972년 12.4%에서 2013년 24.3%로 증가
 - 국민부담률 24.3%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은 편
 - 사회보험제도가 없던 1960년대에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구분이 무의미했으나 1972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양자 간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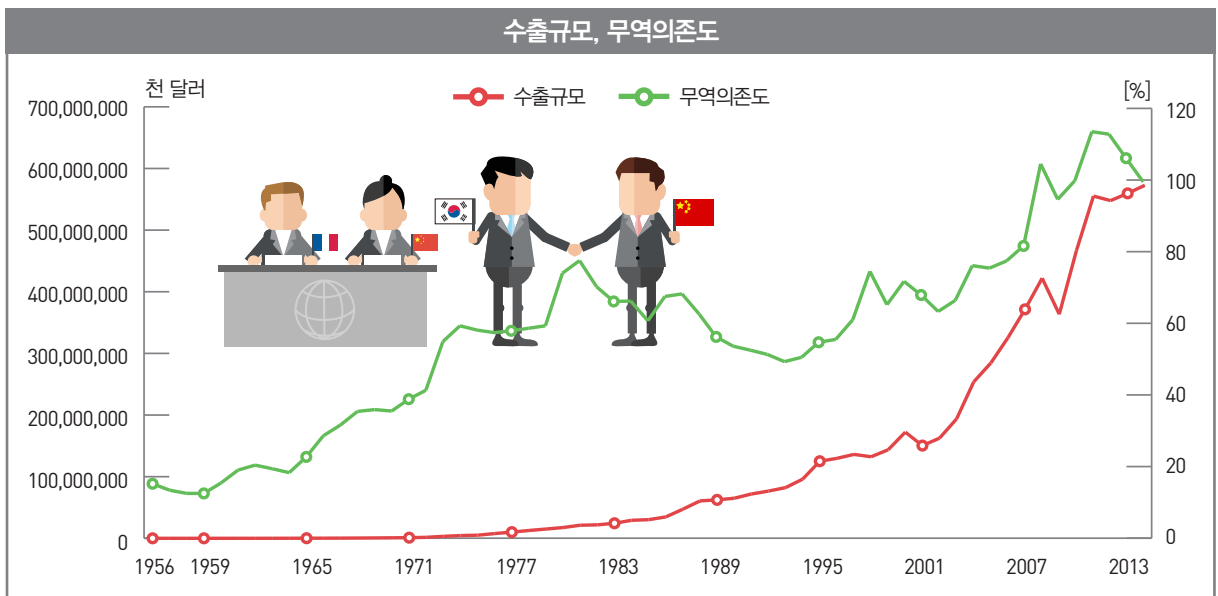


출처 / 조세부담률 :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t.re.kr/TaxFiscalPubInfo/TaxFiscal-View/조세수입/18)
 국민부담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http://www.kipt.re.kr/TaxFiscalPubInfo/TaxFiscal-View/-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20>)

3. 대외거래

■ 2014년 수출 규모 5,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에 올라

- 수출 규모 1956년 2,500만 달러에서 2014년 5,727억 달러로 증가
 -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출규모 크게 증가해 1964년, 1971년, 1977년, 1995년에 각각 1억 달러, 10억 달러,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돌파
 - 2014년 수출액은 5,727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 총액 중 3.1%이며 세계 6위 규모임
- 무역의존도 1956년 15.2%에서 2014년 99.5%로 증가
 - 2014년 수출과 수입을 합한 한국의 무역액은 1조 980억 달러로 세계 무역 총액 중 2.9%이며 세계 8위 규모임
 - 무역의존도(GNI 대비 수출, 수입,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합계의 비중)는 1956년 15.2%에서 2014년 99.5%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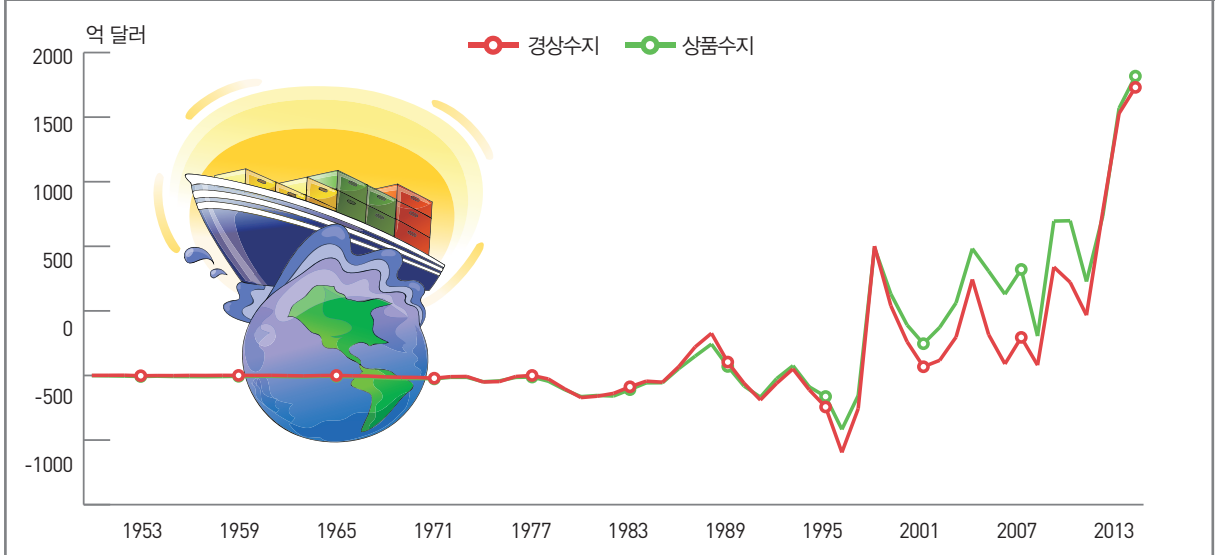


출처 / 수출규모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의존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경상수지 적자에서 1990년대 말 이후 흑자로 전환

- 경상수지,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
 - 상품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도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 예외적으로 1986-1989년에는 3저 현상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
- 1998년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2014년 경상수지는 892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GDP 대비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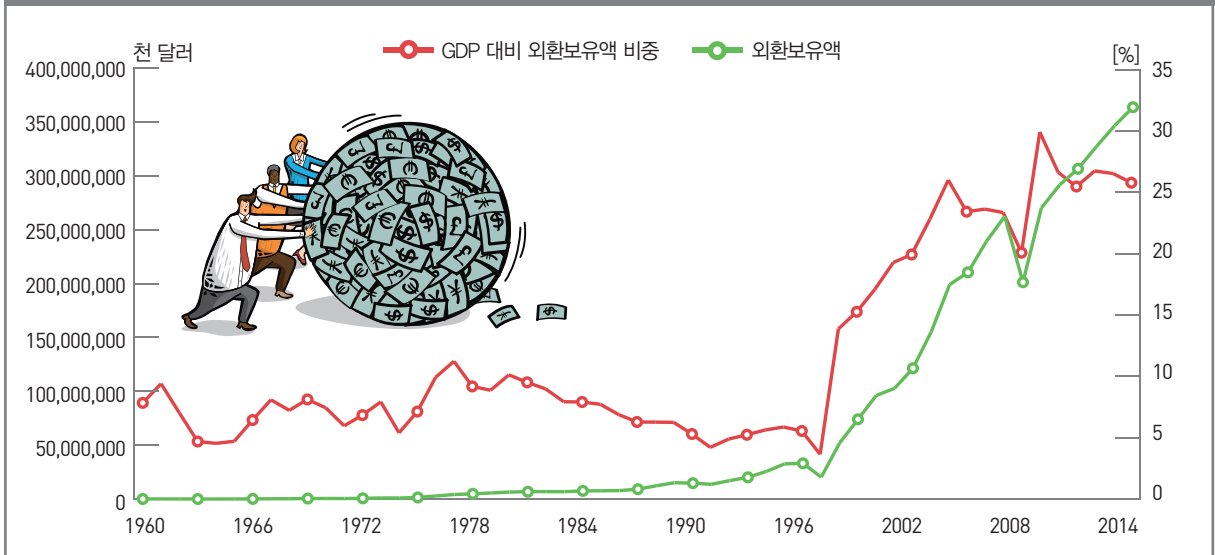
경상수지, 상품수지



■ 2014년말 외환보유액 3,636억 달러로 외환위기이던 1997년 204억 달러에 비해 18배 증가

- 2014년말 외환보유액은 3,636억 달러로 GDP 대비 25.8%. 외환위기 당시이던 1997년의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로 GDP의 3.7%였음
- 환율은 2014년 1달러당 평균 1053.22원으로 1965년 266.58원에 비해 약 4배 상승(원화가치 74.7%절하)
-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16일 환율변동제한폭이 폐지되면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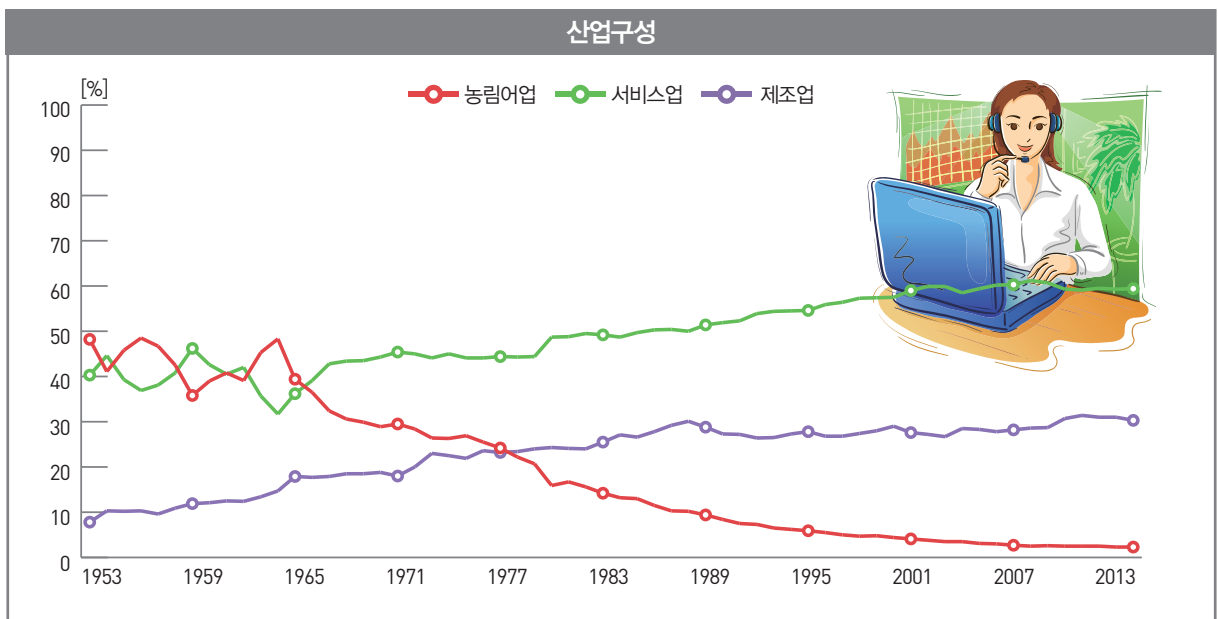
외환보유액,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4. 산업, 금융

■ 1차 산업 비중 크게 감소,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은 세계 수위권 국가로

- 농림어업 비중 1953년 48.2%에서 2014년 2.3%로 감소
 -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48.2%로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8%와 40.3%.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제조업 비중 1979년 24.0%로, 2014년 30.3%로 증가
 - 서비스업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40%대 초반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로 비중이 크게 증가. 2014년에는 59.4% 차지
- 자동차, 선박, 철강 등에서 세계 수위권 국가로 부상
 - 자동차는 1955년에 최초로 7대가 생산된 뒤, 2002년 300만대 생산 돌파. 2014년 생산량은 452만대로 세계 5위
 - 선박 건조량은 1955년 2000GT에 불과하다가 1974년 현대 울산조선소, 1981년 대우 옥포조선소가 준공되면서 건조량 크게 증가. 2013년 선박 건조량은 1003.7만CGT(2122.5만GT)로 세계 2위
 - 철강 생산량(조강 기준)은 1960년 5만MT였던 데서 1970년대 포항제철소 1~4기가, 1987년 광양제철소가 준공 되면서 생산량 크게 증가. 2013년 생산량은 6606만MT로 세계 6위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산업 생산량

	단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자동차 생산대수	대		550	28,819	123,135	1,321,630	3,114,998	4,271,741	4,524,932
철강생산량	천MT	0.4	50	504	8,558	23,124	43,107	58,914	71,542
선박 건조량	천GT		4	39	655	3,573	11,499	26,397	

출처 / 자동차생산량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16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철강생산량 : 한국철강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선박건조량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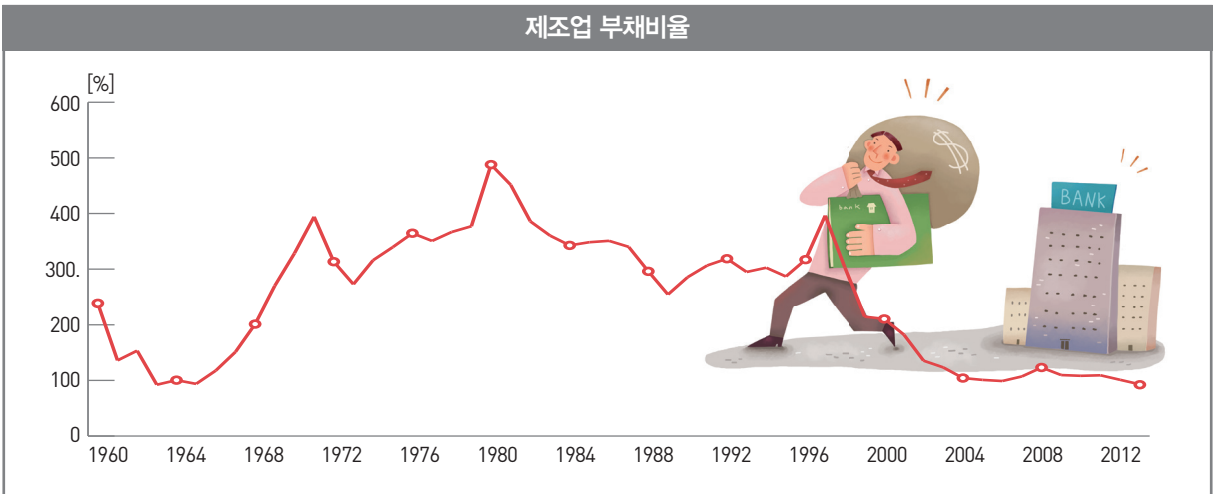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기업 재무구조 크게 개선

○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제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금융비용부담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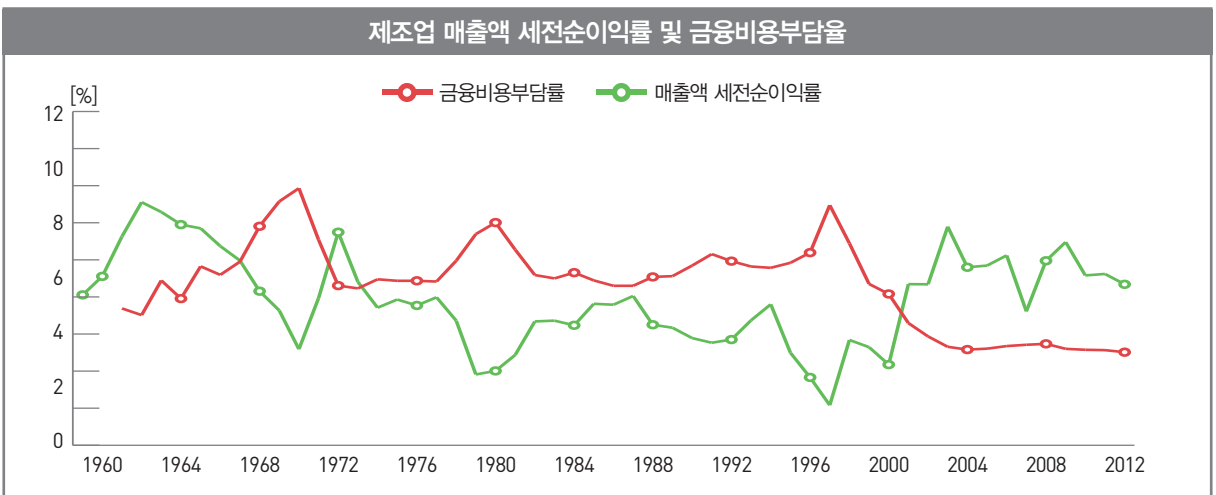
- 한국 제조업 부채비율,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00% 수준을 상회, 1970년대에는 300%를 넘어선데 이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말에는 396.3%에 달함
-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대까지 5%대 이상, 1998년에는 8.95%에 달함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60년대에 10% 이상,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7% 전후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높은 금융비용부담 때문에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추세를 낮아짐. 1997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25%였으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0.34%

○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크게 개선

- 1997년말 396.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 2013년에는 92.93%로 낮아짐
- 1998년 8.95%에 달했던 금융비용부담률도 2003년 이후 1%대로 낮아짐
- 2010년 이후로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임. 2013년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은 각각 5.25%와 4.68%였음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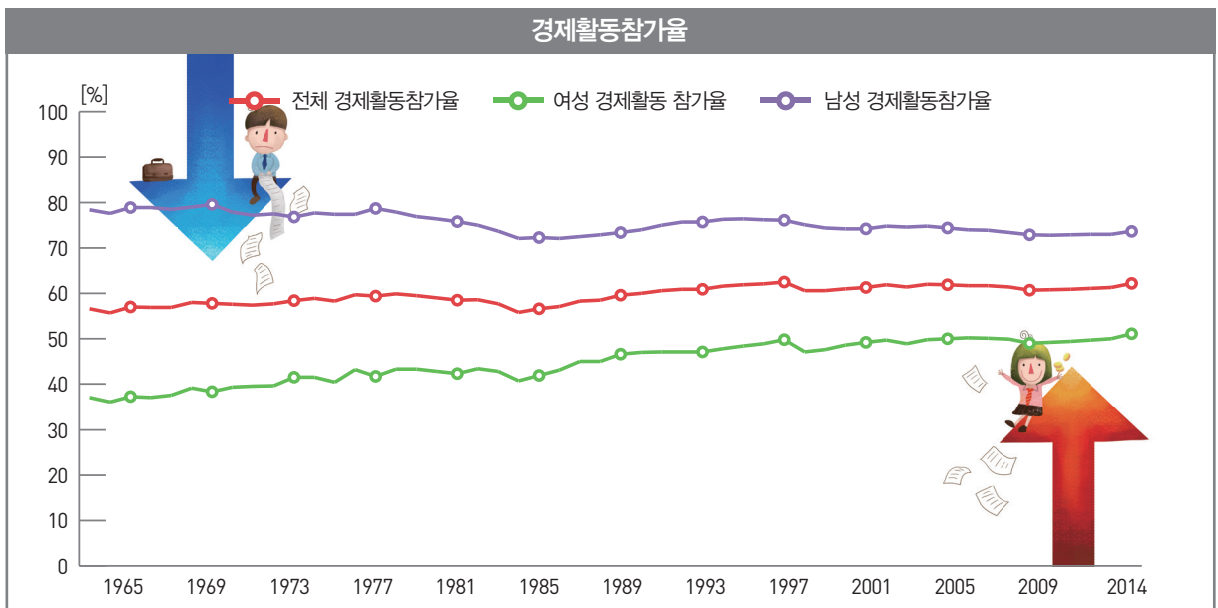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5. 고용,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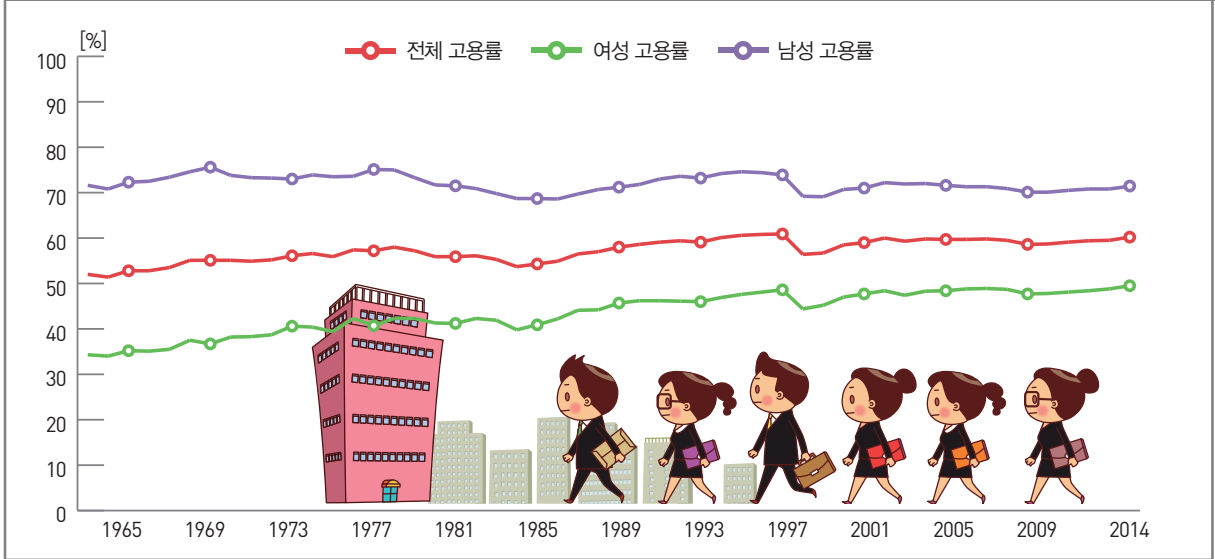
■ 여성 경제 활동 크게 증가(1963년 37.0% → 2014년 51.1%)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63년 37.0%에서 2014년 51.1%로 증가
 - 1963년~2014년 사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78.4%에서 73.7%로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37.0%에서 51.1%로 증가. 같은 기간 남녀를 합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6.6%에서 62.2%로 증가함
 - 1963~2014년 사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남성 71.6%에서 71.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34.3%에서 49.5%로 증가
 - 취업자 중 남녀 비율도 1963년 남성 65.2%, 여성 34.8%에서 2014년 남성 58.0%, 여성 42.0%로 여성 비중 증가
- 비임금근로자 비율 1963년 68.5%에서 2014년 26.8%로 감소
 -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963년 68.5%에서 2014년 26.8%로 크게 감소.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현상임
 - 2012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2%로, 스페인 17.4%, 영국 14.6%, 일본 11.8%, 미국 6.8%, 독일 11.6%보다 높은 편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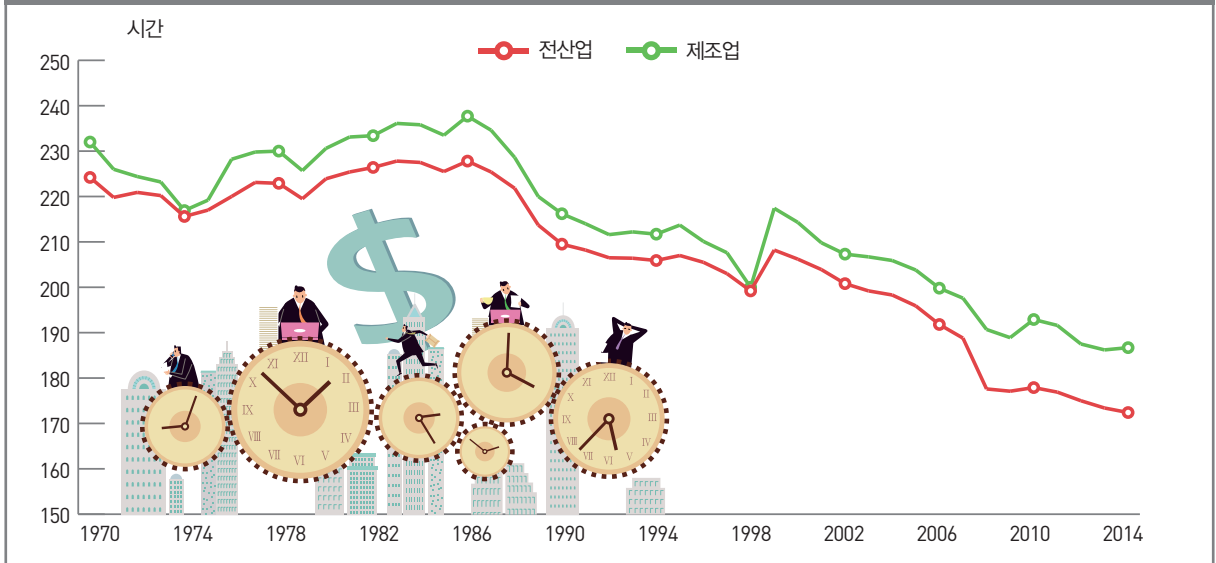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	56.6	57.6	59.0	60.0	61.0	60.8	62.2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78.4	77.9	76.4	74.0	74.2	72.8	73.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37.0	39.3	42.8	47.0	48.6	49.2	51.1
전체 고용률 (%)	52.0	55.1	55.9	58.6	58.5	58.7	60.2
남성 고용률 (%)	71.6	73.8	71.7	71.8	70.7	70.1	71.4
여성 고용률 (%)	34.3	38.2	41.3	46.2	47.0	47.8	49.5
취업자 중 남성 비율 (%)	65.2	63.5	61.8	59.2	58.6	58.4	58.0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34.8	36.5	38.2	40.8	41.4	41.6	42.0

■ 제조업 월 평균 근로 시간 1970년 232시간 → 20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1970년 232시간 → 20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1970년 232시간에서 1986년 237.7시간으로 늘었다가 19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 2000년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거치면서 20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201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독일 임금근로자의 1312.9시간, 프랑스 1400.8시간, 영국 1659시간, 그리스 1729시간, 일본 1746시간, 미국 1795.5시간 등보다 긴 편임
- 노조조직률 1977년 25.4%에서 2013년 10.3%로 감소
 - 한국의 2010년 단체협약적용률은 10%로, 미국 13%, 일본 16%, 영국 31.2%, 호주 45%, 독일 61%, 스웨덴 91%, 프랑스 92%에 비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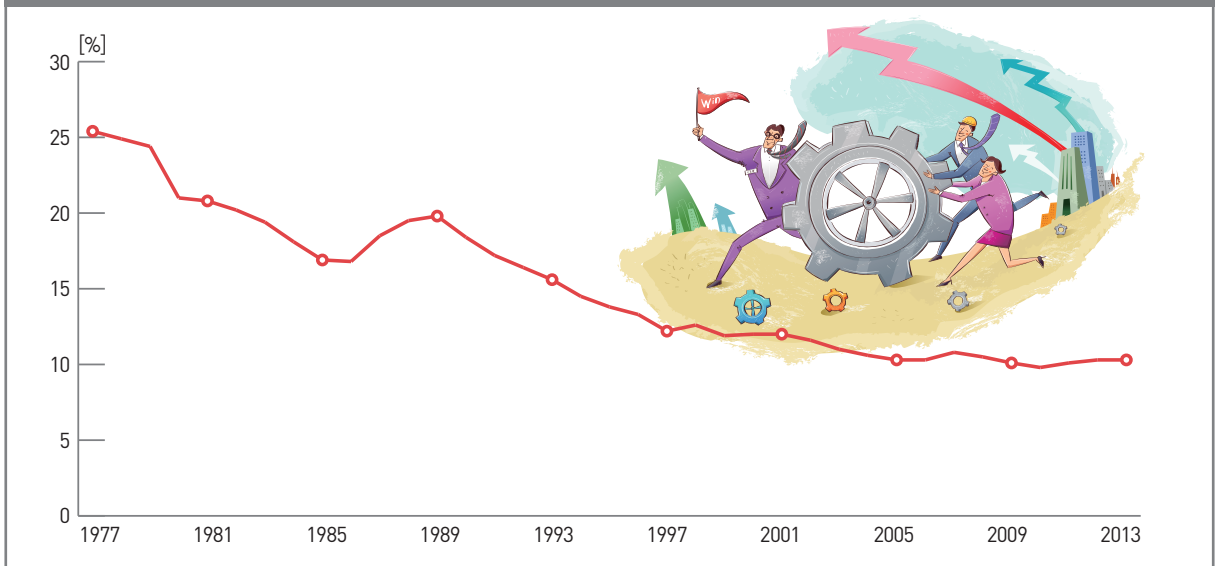
전산업 및 제조업 월 평균 근로시간



주 :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84년 12월 p. 34, 35,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92년 12월 p. 32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노조 조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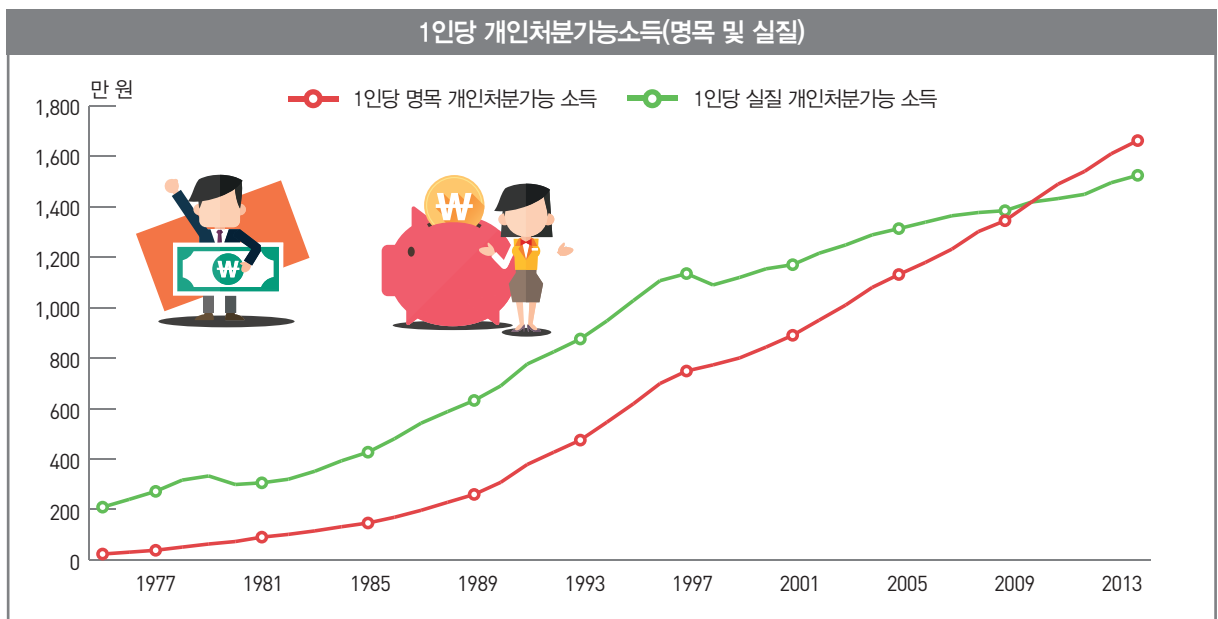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e나라지표(www.index.go.kr).

6. 소득, 소비, 물가

■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선 추세

-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 1975년 22만 9000원에서 2014년 1663만원으로 증가
 - 물가 상승을 고려한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010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1975년 209만원에서 2014년 1525만원으로 증가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013년 한국의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만 1402달러로 미국(4만 3740달러)의 약 49%
-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최근 개선 추세
 - (도시 2인이상 가구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악화되었으나 2014년에는 0.308로 개선추세
 - ※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값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도 1990년 3.93배에서 2010년 6.02배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5.67배로 개선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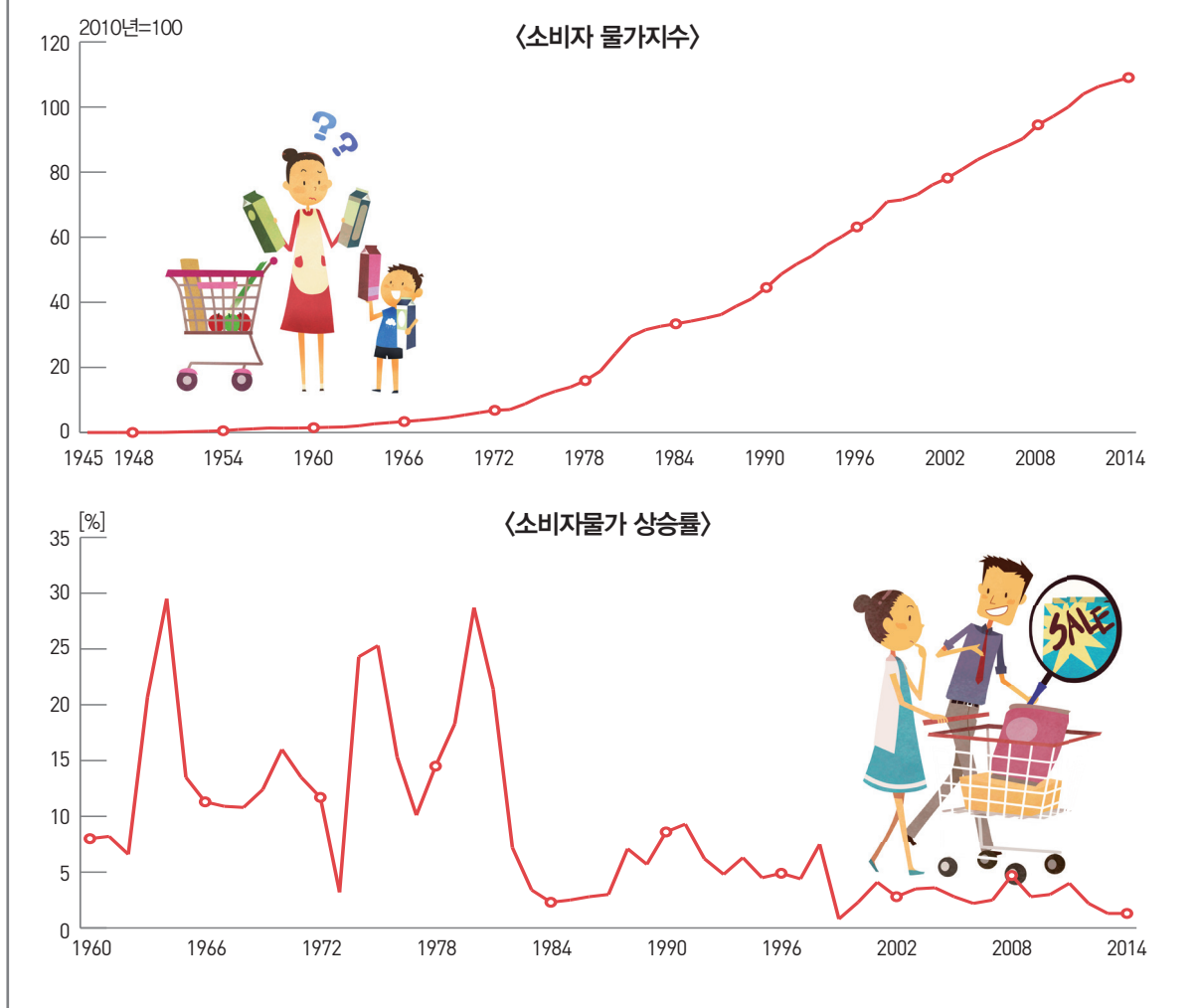


주 : 1인당 실질개인처분가능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 적용.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1965년~2014년 소비자 물가 36배 상승

- 1945년~1952년 사이 물가 약 330배 급등. 1981년까지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다가 1982년 이후 한자리수로 물가 안정
- 2010년 물가 기준, 1965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2에서 2014년 109.04로 36배 증가. 1965년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2014년에 구입하려면 36만원이 필요
-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물가 수준은 낮은 편. 2013년 한국의 물가에 비해 미국 16%, 일본 27%, 독일 31%, 영국 47%, 호주 62% 물가가 높음

소비자 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1945~196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83의 2000년=100 수치를 2010=100 기준으로 재산정한 값임.

번호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소비자물가지수	0.03	1.48	5.38	24.27	44.54	73.10	100	109.04
소비자물가 상승률 (%)	167.5	8.0	16.0	28.7	8.6	2.3	3.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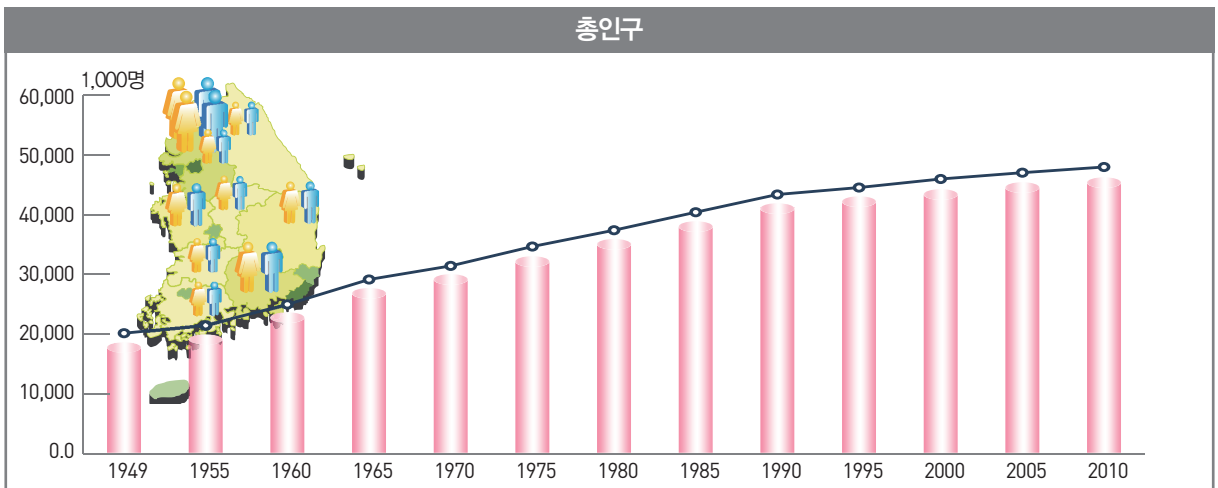


II 사회부문

1. 인구

■ 1949년 대비 인구는 2.4배로 증가(내국인 기준)

- 1949년 인구는 당시의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약 2,017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 명으로 집계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26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3번째임
- 전체 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의 비중이 1990년 25.7%에서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10년 11.3%로 높아짐
- 한국 인구(추계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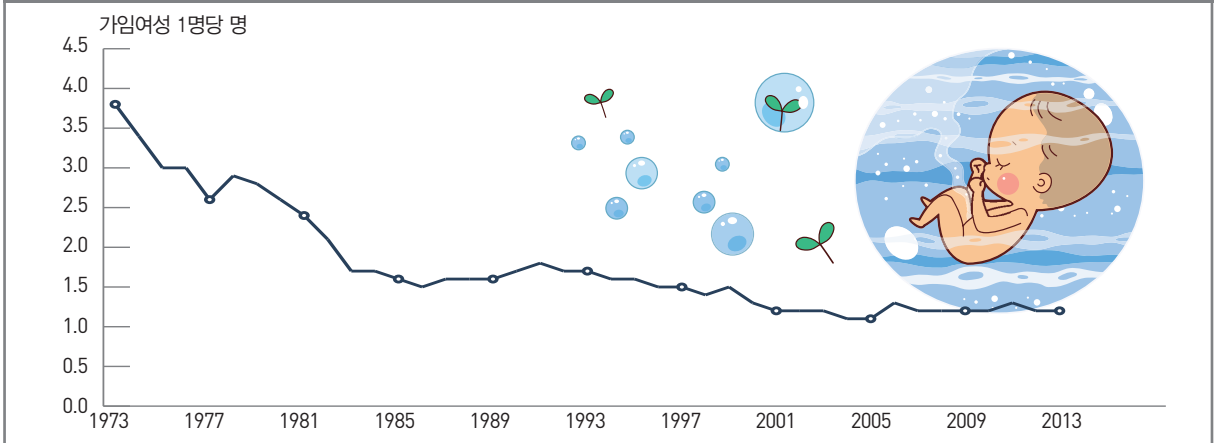
- 주 :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전체 인구에는 '연령 미상' 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집단별 인구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1949년 자료의 경우 64세 인구까지만 자료가 제공되어, 만 60-69세 인구는 60-64세 인구임.
 4) 1960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연령집단별 인구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음.
 5) 1970년에는 해외주재공관원 및 그 가족(약 1,200인)을 제외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

- 한국 사회의 출산수준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만 이후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여 1983년 합계출산율 2.1의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
-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출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켜 2000년대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
-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만 5천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주로 기인
 - 출산연령도 변해서 2007년부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에서 30-34세로 바뀜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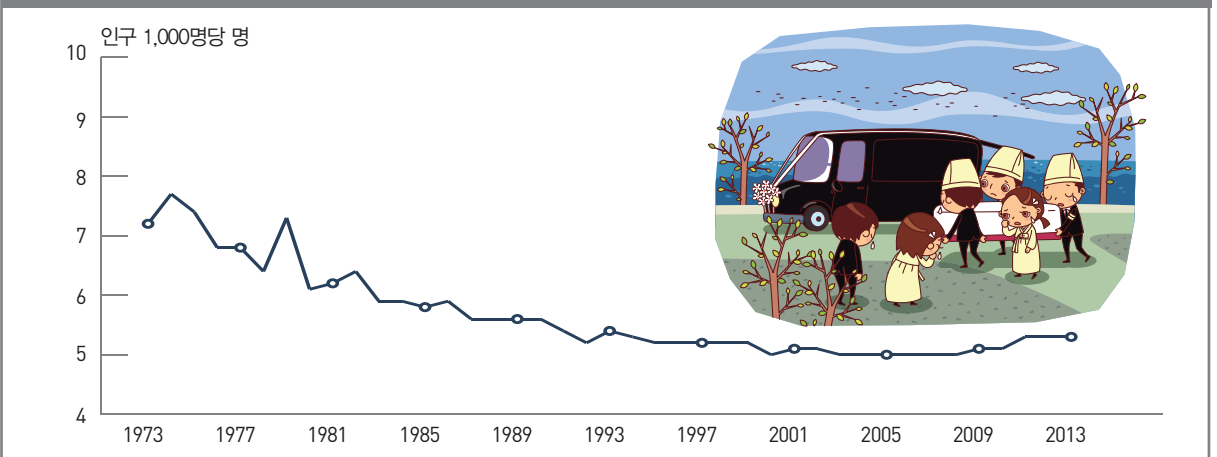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 =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의 합 ÷ 1,000) × 5. 연령별 출산율은 1년간 발생한 산모의 연령별(15-49세, 5세 간격)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해당 연령별 여성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한국인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지난 7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한국의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
 -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아사망률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스웨덴,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
-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가 1970년 8.0의 수준에서 2004-2009년 5.0명으로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4년(잠정) 5.3명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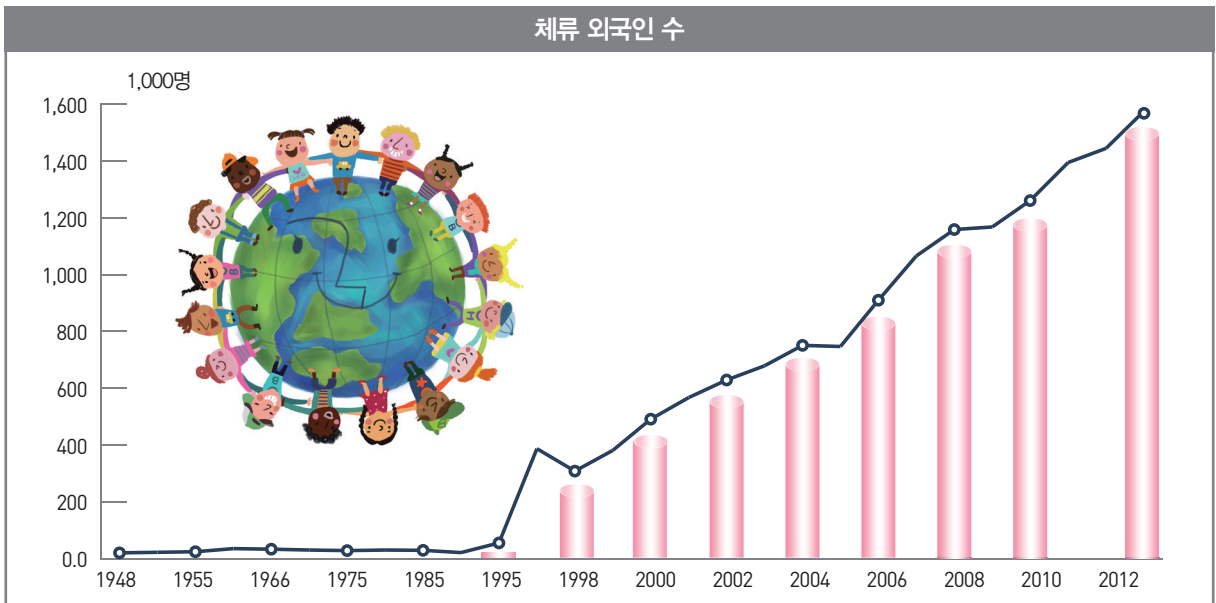
주: 1) 조사망률은 해당연도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2) 조사망률 = (연간 사망자수 ÷ 해당 연도 연앙인구) ×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체류외국인은 2013년 157.6만 명을 기록해 1948년(2만명) 대비 약 79배 증가

- 한국은 1970년대까지 인력수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인구수입국으로 변화
- 1997년 이후로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 현재 157.6만 명으로 2011년 대비 12.97% 증가
-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3년 현재 18.3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2년 30.8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수는 2006년까지 3.9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그 누적 규모가 14.6만 명으로 8년 사이에 약 3.7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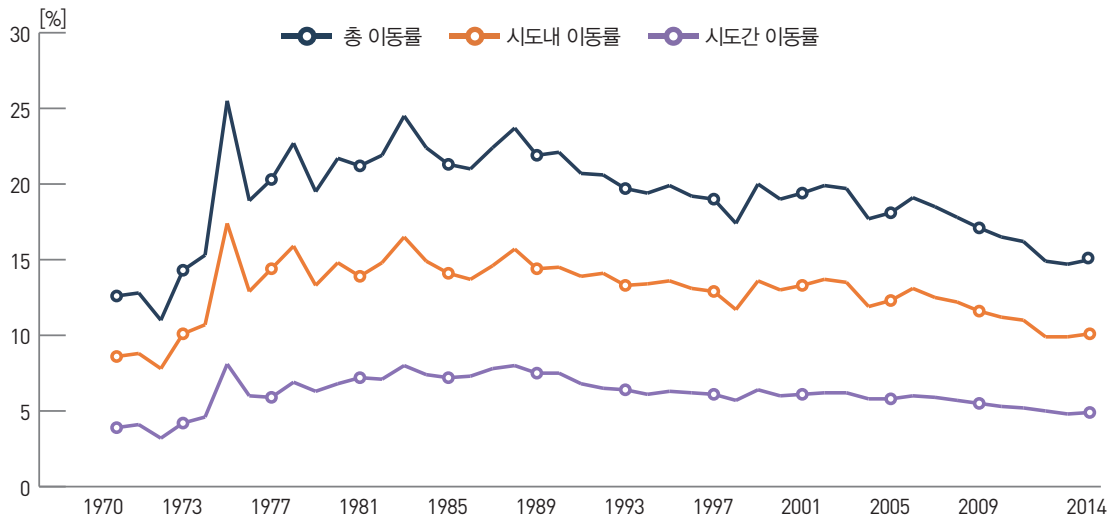
주 : 체류외국인수는 연말 기준임.

출처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연감」;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인구이동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11년 처음 수도권의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 수를 추월

-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음
 -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의 이동으로 1970년 405만 명(이동률 12.6%), 1980년 826만 명(이동률 21.7%), 1990년 946만 명(이동률 22.1%) 이동
 - 2000년대 이동자수는 점차 줄어들어 2000년 19.0%, 2010년에는 16.5%, 그리고 2014년에는 15%
- 한국 인구이동의 주류는 수도권으로 향한 인구이동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가장 심했던 1970년대 매년 약 3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
 - 1990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매년 약 12만 명 수준을 유지
- 수도권의 순이동이 2011년, 2013년~2014년 모두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수도권에서 이동할 잠재적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지방도시의 흡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국내 인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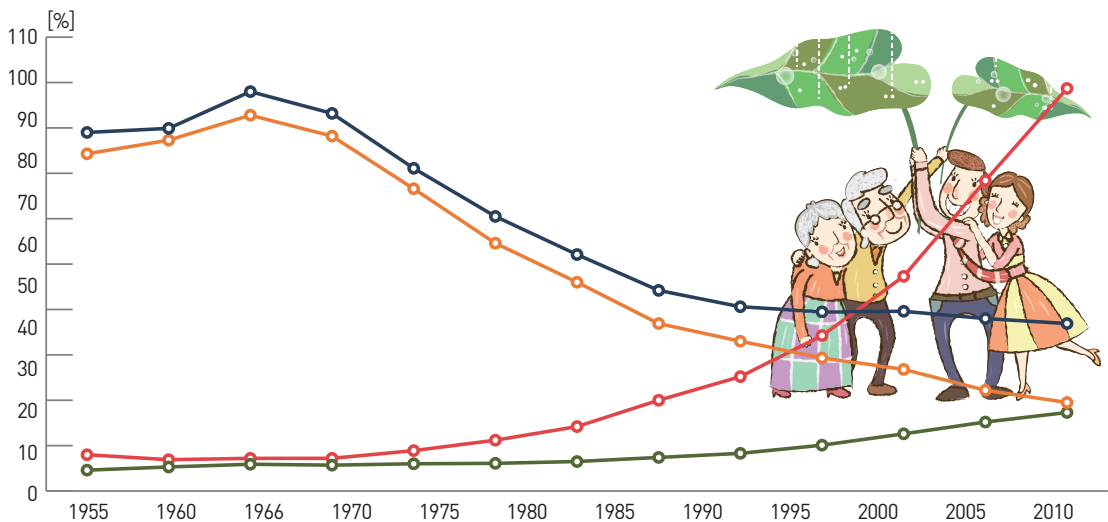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4년 12월 및 연간 국내인구가동통계」;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 출산수준 및 사망률 저하, 그리고 수명 연장으로 총 부양비는 감소

-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77.3%로 매우 높았지만 2014년에는 출산수준의 감소 등으로 19.5%로 감소함.
-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인 사망률 저하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2014년에는 17.3%로 3배 이상 증가
-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10%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8.7%에 도달

부양인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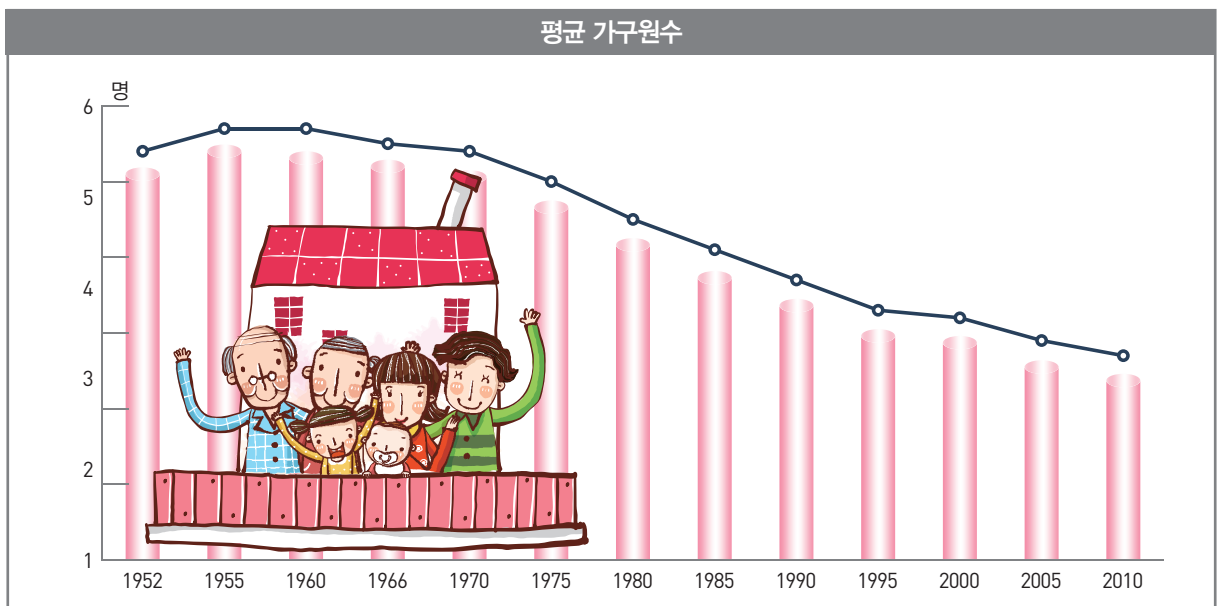
주 : 총부양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가구와 가족

■ 평균 가구원수는 1952년 5.4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감소

- 1952년 5.4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55년과 1960년에 5.7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 5.4명, 1980년에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2명, 2010년 2.7명이 됨
-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가구의 증가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
-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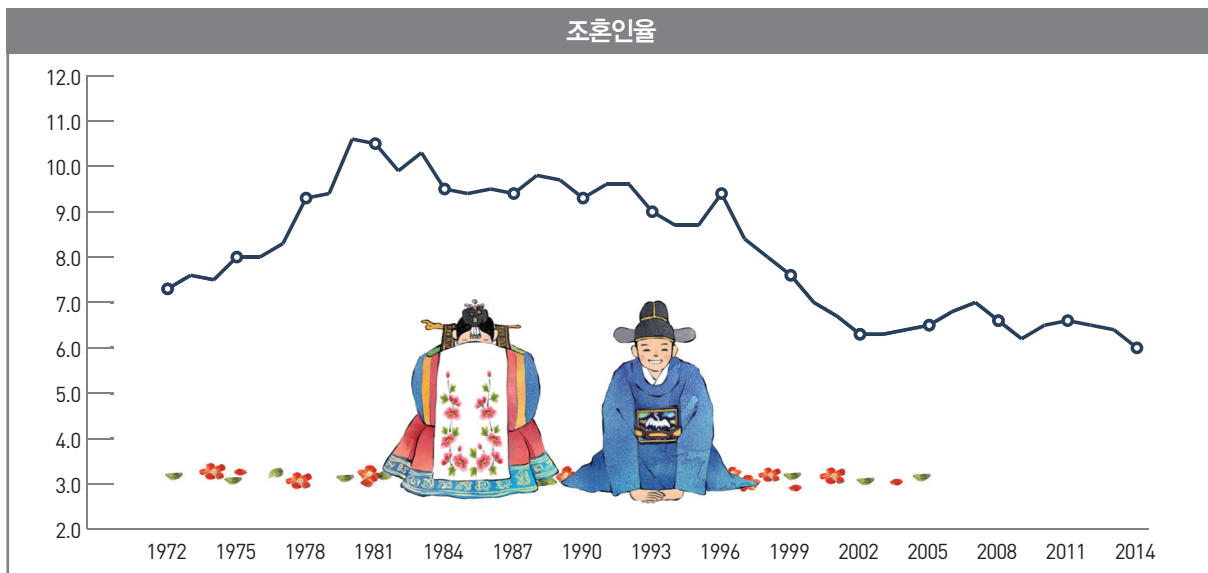


주 :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수.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통계연감」.

■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14년 6.0건으로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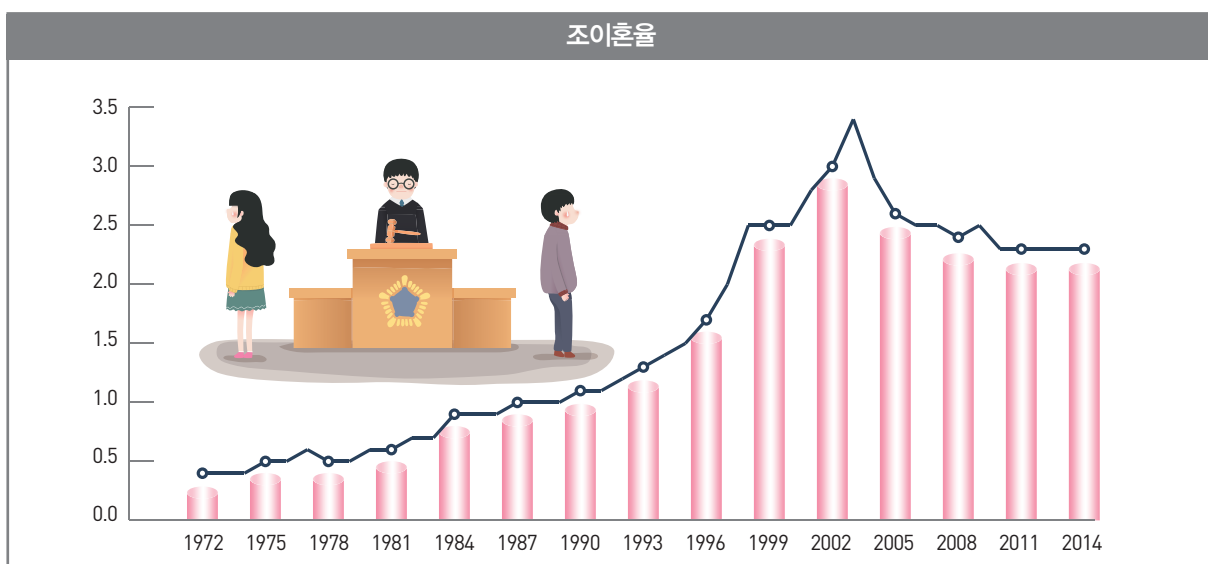
- 조혼인율은 1960년대 급상승 이후 1970년대에 다소 낮아졌다가, 1980년 10.6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4년 6.0건으로 크게 감소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조혼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0여 년 사이 급격히 감소
- 지난 30여 년간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남자 32.4세, 여자 29.8세임



주 :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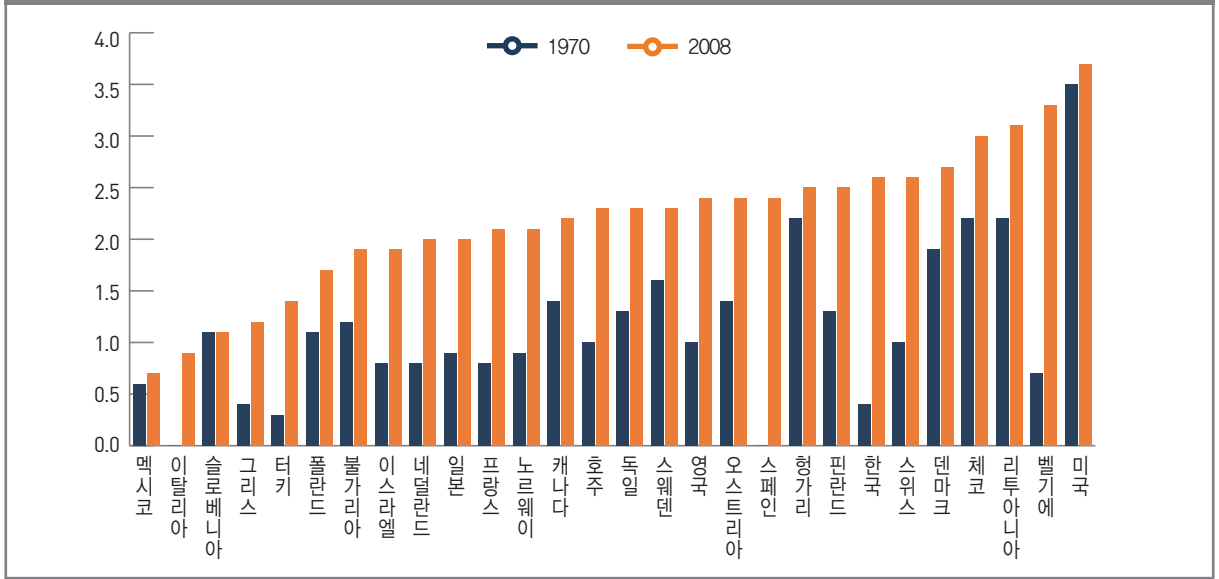
■ 조이혼율은 1970년 0.4건에서 2014년 2.3건으로 증가

- 한국의 조이혼율은 1970년 0.4건, 1980년 0.6건, 1990년 1.1건으로 완만하게 증가
- 2000년 들어 이혼율이 2.5건으로 급증 이후 2003년 3.4건으로 최고점에 이름
- 이후 조이혼율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현재 2.3건으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을 보임
-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1970년 하위 4번째로부터 2008년 상위 10번째가 됨
-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경제적 불안정 증가, 호주제 폐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기인



주 :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OECD 주요국의 조이혼율



주 :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임.

2) 2008년 수치 중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 등은 2007년 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2006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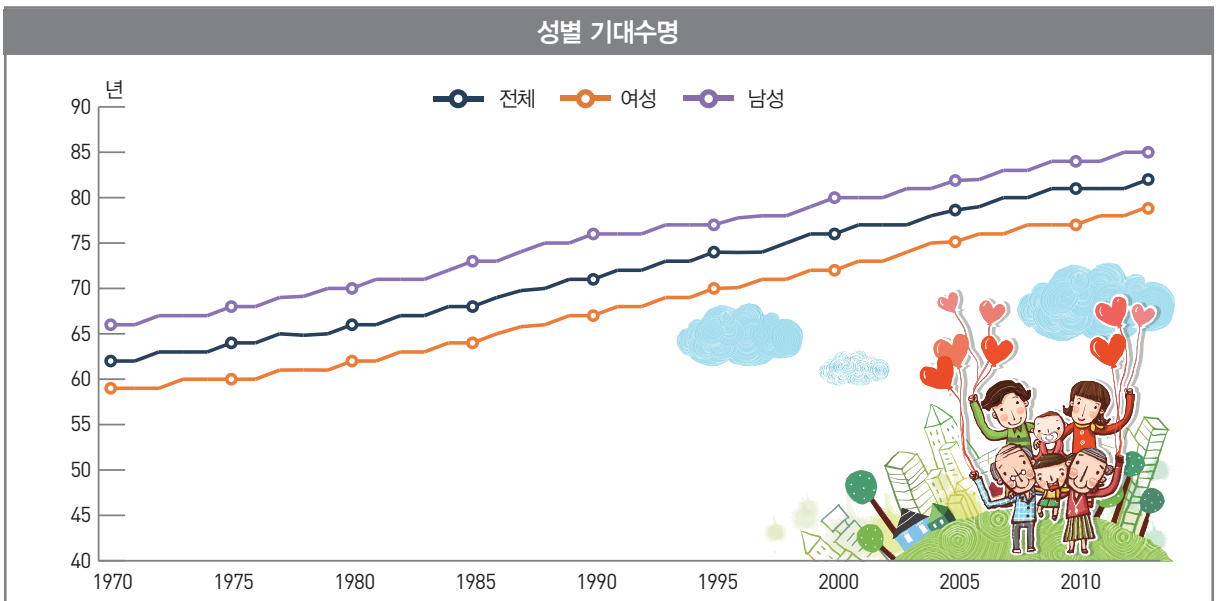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 · 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출처 / OECD 「<http://www.oecd.org/>」2014 .06; 「OECD Family Database 2014」.

3. 건강

■ 1970년에 비해 기대수명은 61.9세에서 2013년 81.9세로 지난 43년간 약 20세 증가

- 1970년에 남성의 평균수명이 58.7세, 여성의 평균수명이 65.6세로서 6.9세 차이가 났는데, 2013년에는 남성 수명이 78.5세, 여성 수명이 85.1세로 늘어났고, 그 차이는 여전히 6.6세임
- 한국의 기대수명을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보면, 1970년에는 61.9세로서 4개국 중 가장 기대수명이 짧았지만, 1986년에 69.1세로 중국을 추월했으며, 2002년에는 77.0세로 미국을 추월함
- 건강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한국인의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은 2012년에 66.0세로서 2012년의 기대수명 81.4세와는 15.4년의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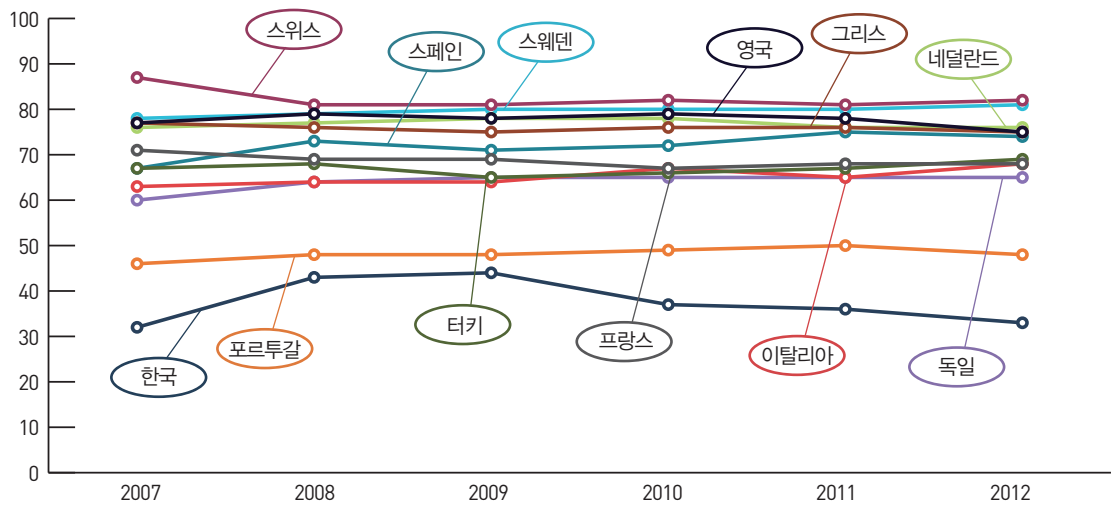
주 : 기대수명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특정 출생 집단이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산출한 「생명표」에서 '연령별 기대여명' 중 '0세의 기대여명' 임.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OECD, STAT, life expectancy

■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포르투갈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모두 6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및 40대 등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함
-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실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 한다는 것을 드러냄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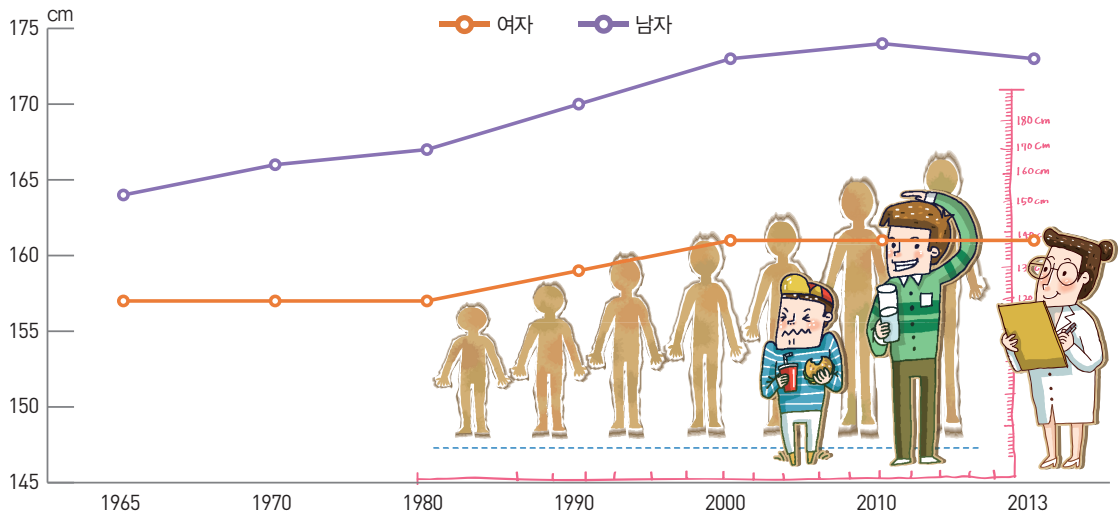
주 : 건강인자율은 전체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 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한국은 만 19세 이상, 그 외 유럽국가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OECD, <OECD health dat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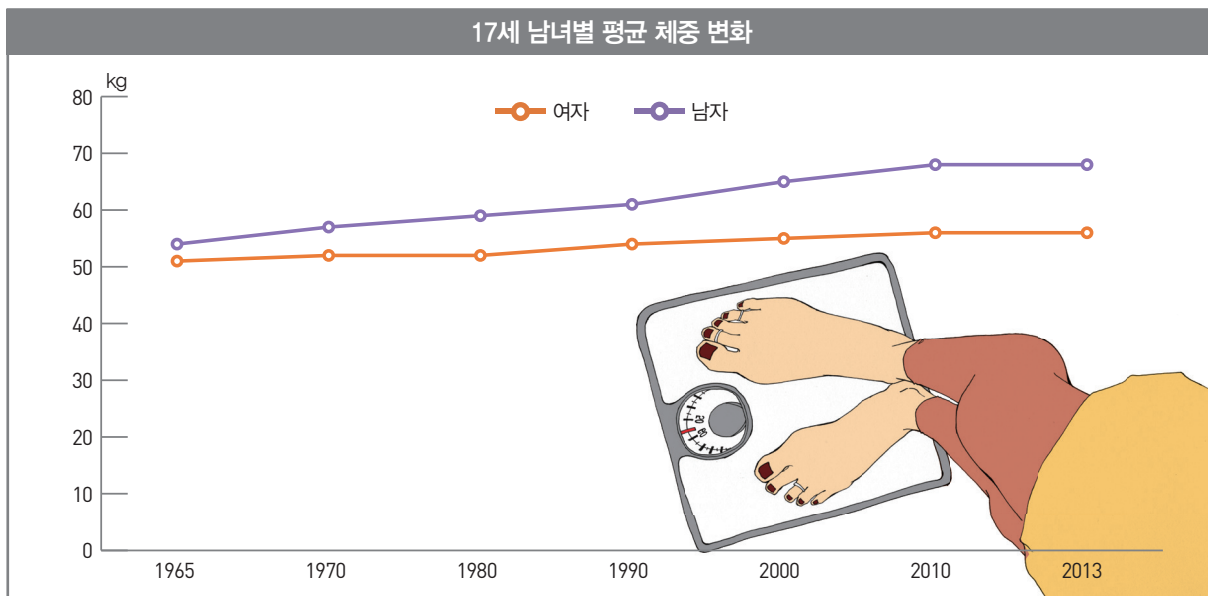
■ 1965년 대비 2013년에 17세 남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9.5cm, 13.9kg, 17세 여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3.9cm, 5kg 증가함

- 1965년 대비 2013년에 17세 남자의 키는 163.7cm에서 173.2cm로 9.5cm 커짐
- 같은 기간 17세 여자의 키는 156.9cm에서 160.8cm로 3.9cm 증가함
- 1965년 대비 2013년 17세 남자의 몸무게는 54.3 68.2 kg으로 13.9 kg증가함
- 같은 기간 17세 여자의 몸무게는 51kg에서 2013년 56kg으로 5kg 증가함

17세 남녀별 평균 신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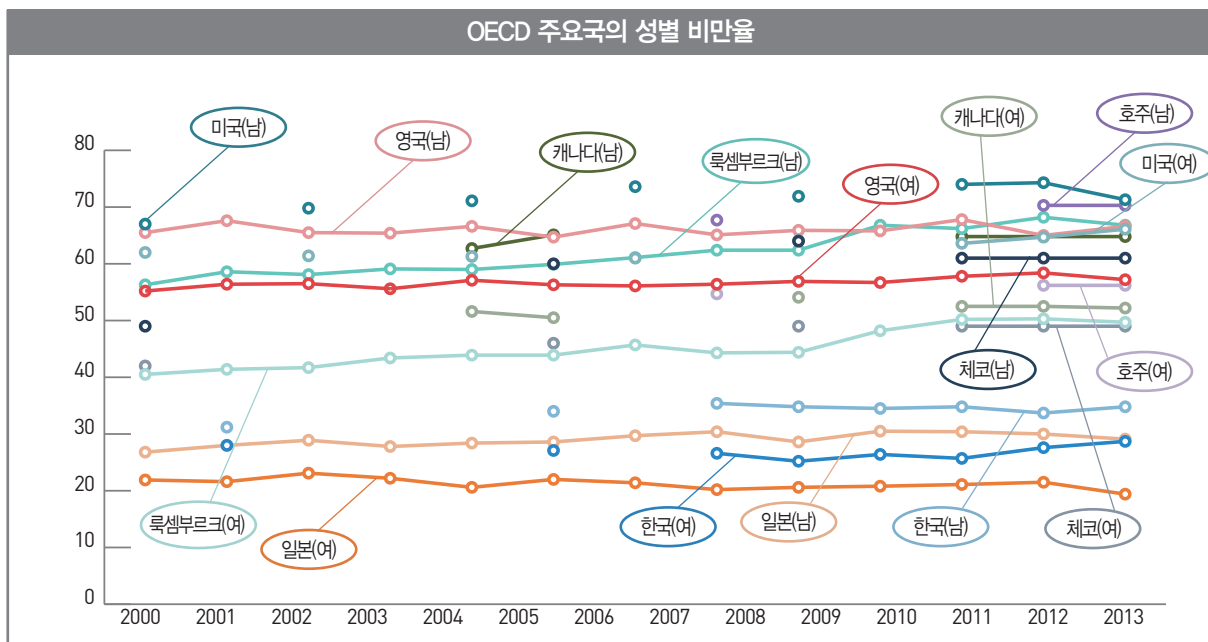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비만율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임

- 1998년 26%의 성인이 비만이었으나 2013년 31.8%의 성인이 비만 상태에 있음
- 여성의 비만율이 25~28%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남성 비만율이 1998년 25.1%에서 2013년 37.6%로 크게 증가
- 룩셈부르크, 미국, 영국, 일본, 체코, 캐나다, 호주의 성별 비만율과 한국의 성별 비만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만율은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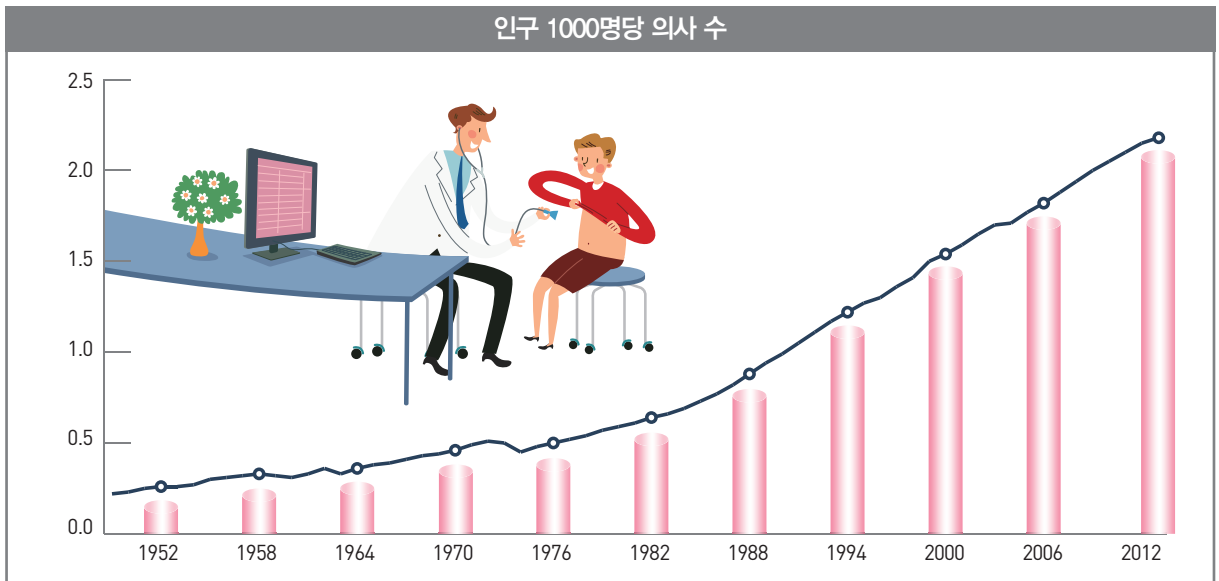


주 : 비만율은 만15세 이상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체질량지수는 직접 계측방식으로 측정되었음.2) 체코, 캐나다는 2010년, 호주는 2011년 자료임.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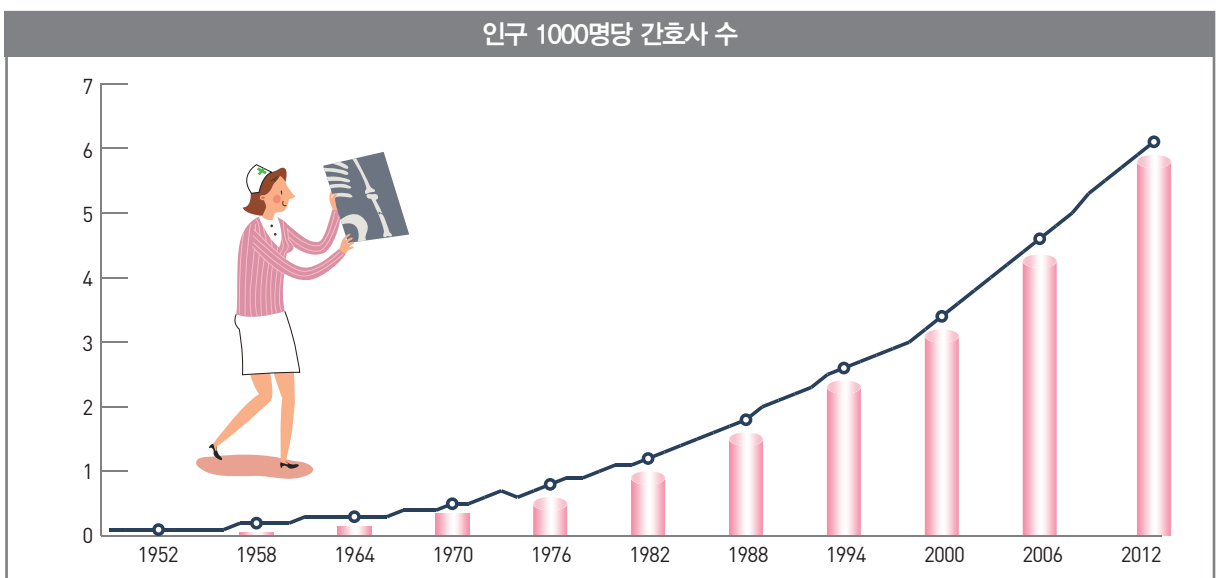
출처 /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 1949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22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

- OECD 주요국(독일, 멕시코,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의 2012년 평균 3.2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사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949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0.1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6.1명으로 60배 가까이 증가
- 그러나,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2년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55%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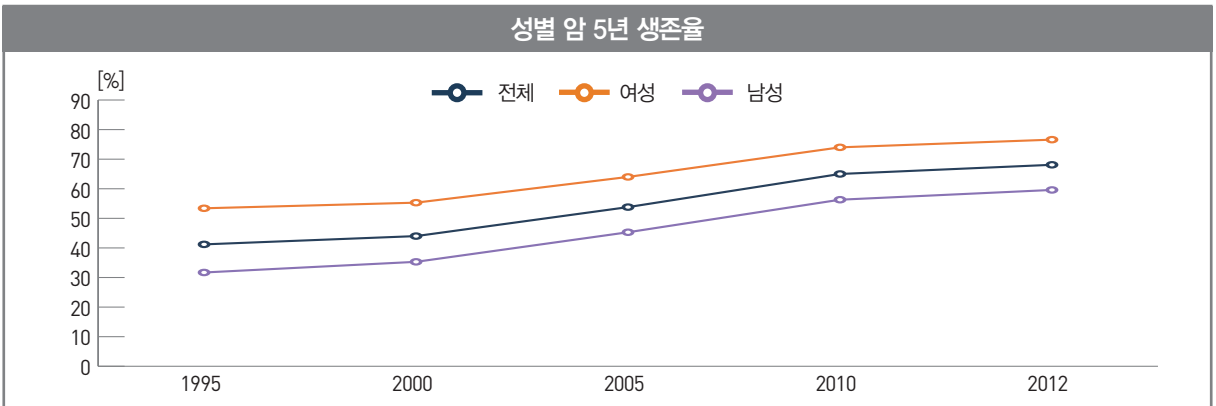
주 : 전체 통계는 면허의사수 기준이고, 시도별 통계는 의료기관종사 의사수(활동의사 수) 기준임2) 시도별 통계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4.



주 : 간호사수는 면허간호사 기준임2)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암 5년 생존율은 1995년 41.2%에서 2012년 68.1%로 26.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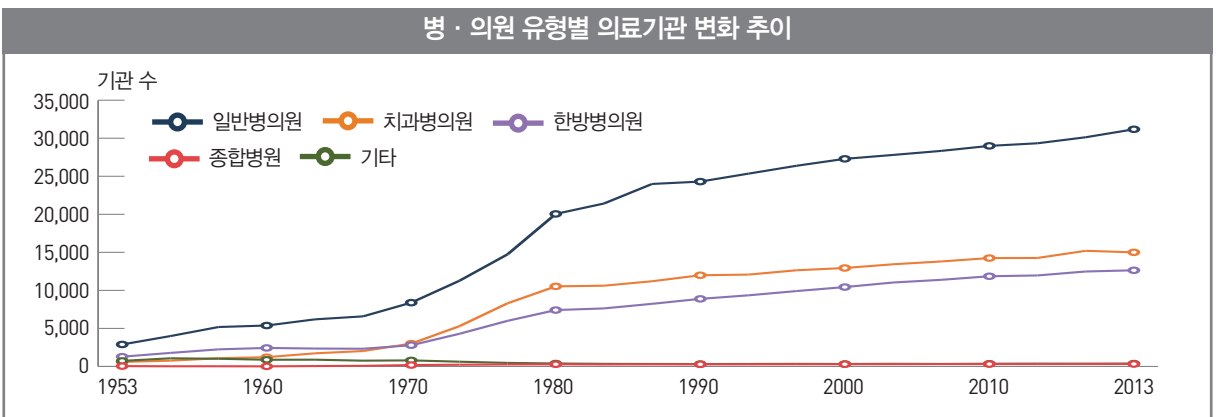
- 개선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대장암 분야로서, 5년 생존율의 경우, 1995년에 54.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4.8%로 크게 증가함
- 유방암 5년 생존율도 1995년 78%에서 2012년 91.3%로 크게 증가함
- 한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2007년에는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했으나, 2011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을 10%p 이상 추월하여 세계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게 됨



주 : 암 5년 생존율은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12년 암등록통계)>, 2015.

■ 의료기관수는 1955년 5,542개소에서 2012년 59,519개소로, 10배 이상 증가

-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은 1955년에 42개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323개로 7.7배 늘어났고, 병원(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은 같은 기간에 90개에서 1,327개로 14.7배 늘어남
-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조산원은 한때 1,000개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거의 소멸되어 찾아보기 힘들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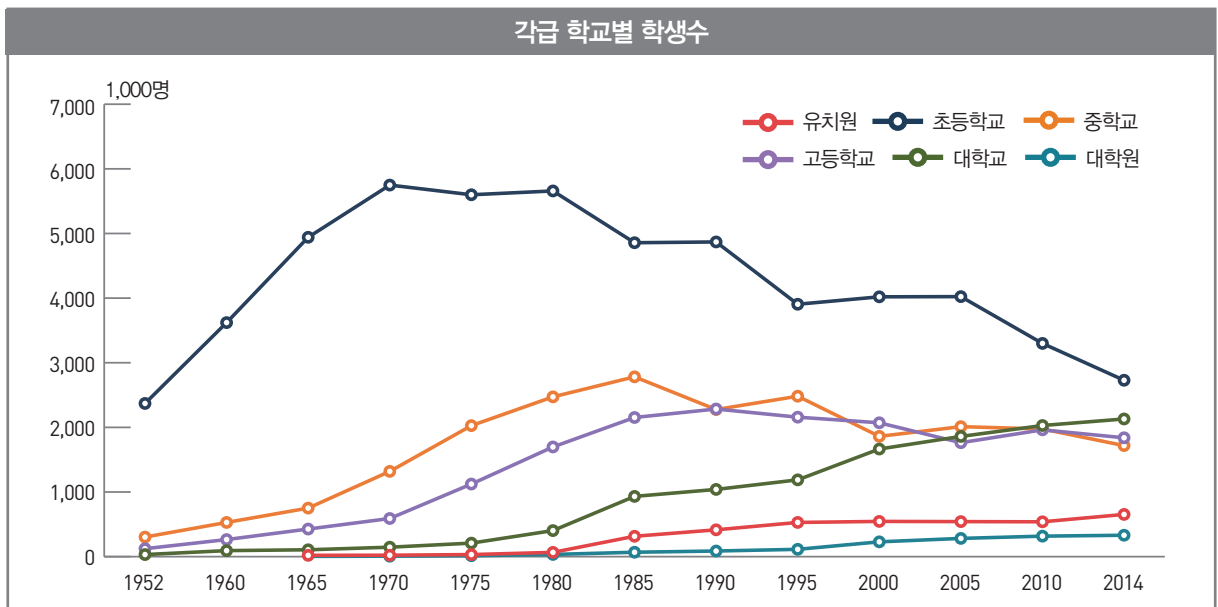
주 : 1)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 (의료법 제35조).

2) 1965~1980년 기간동안 병, 의원에 대한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1970년을 대신하여 1969년 자료를, 1975년을 대신하여 1977년 자료를 기입하였음.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4. 교육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증가하다 감소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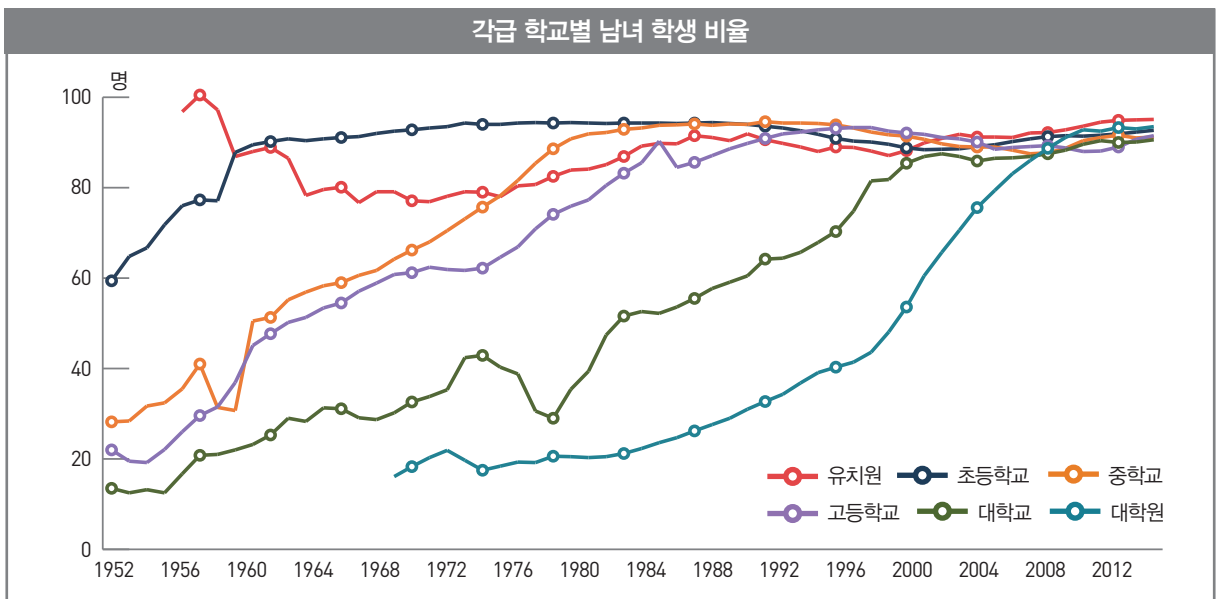
- 초등학생 수는 의무교육이 일찍 시행되어 인구의 변화가 학생 수의 변화로 바로 연결. 1952년 237만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0년 575만으로 2.5배에 가깝게 급증한 이후 1980년 56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해서 2014년 현재에는 273만 명
- 1952년 30만이었던 중학교 학생 수는 1980년 247만으로 빠르게 증가한 뒤 1985년 278만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2014년 현재 172만 명
- 고등학생 수는 1952년 12만 명에서 1983년 200만 명을 넘어, 1989년 23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84만 명
- 대학생은 인구변화 외에도 대학 설립 완화로 1952년 불과 3만 명에서 1985년 100만에 가까이 되었으며, 2014년 213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주 :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경제수준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 비율의 격차 감소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남녀비율이 196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유지
- 1952년 당시 중학교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28%, 고등학교의 경우 22%, 대학교의 경우 14%에 불과
- 1971년에는 중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64%로, 고등학교의 경우 61%로 높아졌으며, 1980년에는 각각 89%와 74%, 1990년에는 각각 94%와 89%로 증가
- 대학교에서의 남녀 학생 비율 1971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30%, 1980년에 29%, 1990년에 59%, 2000년에 85.4%, 그리고 2014년에 90.6%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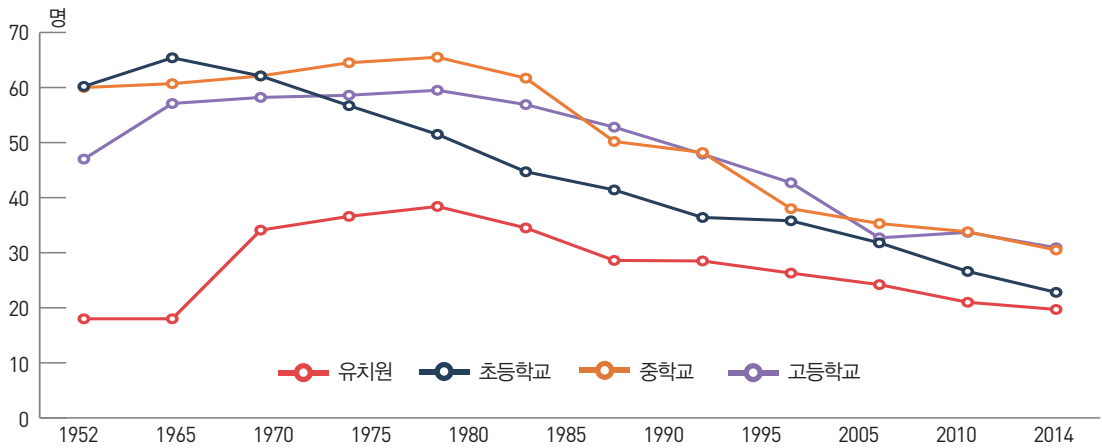


주 :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성비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를 의미함.
3) 대학생의 경우 총 재적인원이 아닌 재학생에 대한 남녀 학생 비율임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경제수준의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치 못했던 과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아서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지만 경제수준의 향상 및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상황은 빠르게 개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52년 60명에서 1965년 65명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1985년 45명, 2014년 23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0년 66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서 2014년 절반이 채 안 되는 31명으로 감소.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52년 47명에서 1980년 60명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인 31명으로 감소

학급별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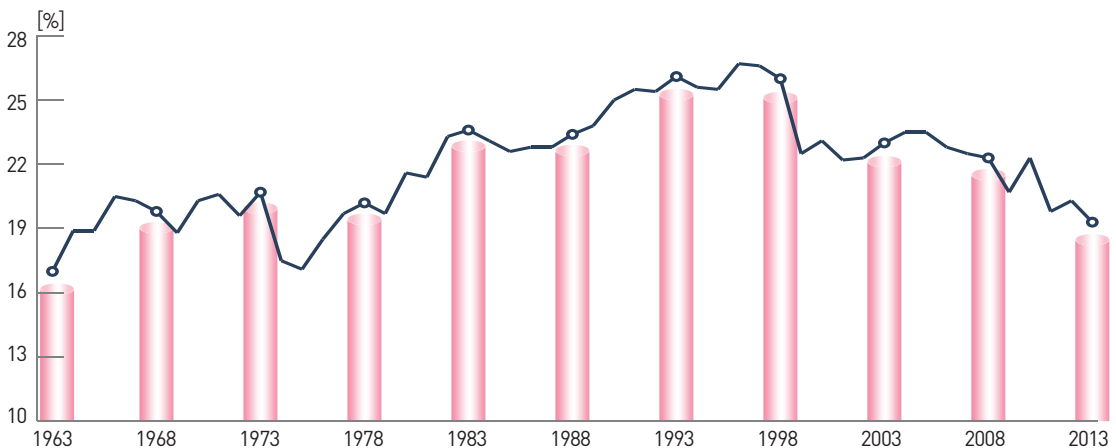


주 :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대학과 대학원생은 도표에서 제외됨.
3) 도표에서 유치원의 경우 1952년 수치가 없어 1965년 수치를 입력한 것임.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

-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계속 유지
- 교육예산 비율은 1963년 14.3%에서 1990년대 22%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를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 20%대, 2013년 약 1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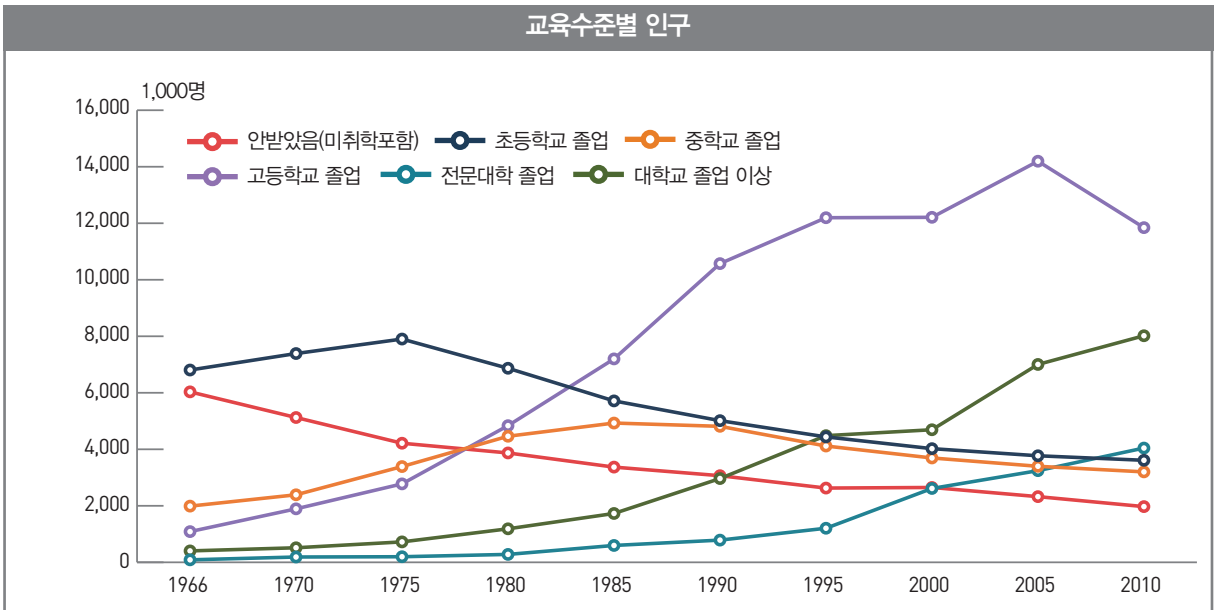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주 : 1) (~2004) 정부예산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2005~) 정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5) 2013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 1980년까지 한국의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였지만, 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을 앞서기 시작
- 대학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의 결과 1995년 고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국민의 평균 교육 년수는 2012년 현재 17.5년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다. 이는 미국(17.2년), 일본(16.3년)보다는 높지만, 핀란드(19.7년), 호주(19.4년)보다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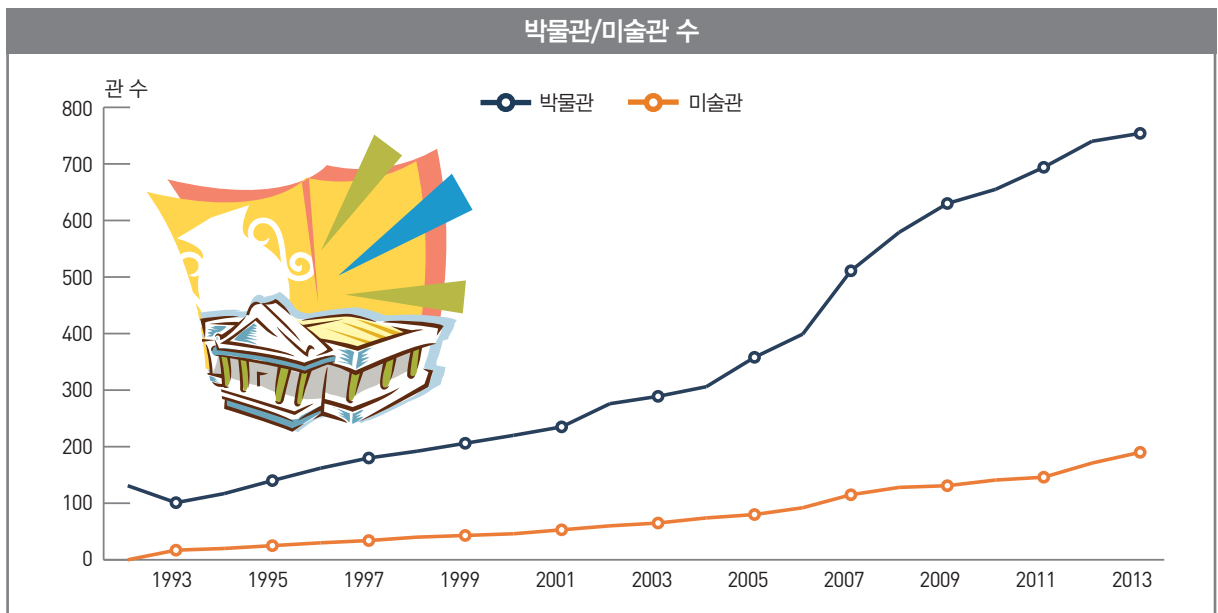


주 : 1) 6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함.
 2) 1955년은 각학교급의 졸업자가 아닌 취학자 인구를, 미취업 인구는 국문불해독자를 의미함.
 3) 1955, 1960년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자 수는 전문대 진학 이상의 학력자를 의미함.
 4) 1960년의 경우 수학년수 0= '안 받았음', 1-5= '초등학교 졸업', 6-8= '중학교 졸업', 9-11= '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 '전문대 졸업 이상' 으로 분류함.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5. 문화와 여가

■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

-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가능한 1990년대 이후를 보면 1991년 131개였던 박물관의 수는 2004년 300개를 넘어선 뒤에 급증해서 2013년 754개
 – 2000년대 중반 이후 박물관이 급증한 것은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수가 증가한 결과
- 1993년 17개에 불과했던 미술관은 2013년에 190개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사립미술관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2000년 36개에 불과했던 것이 131개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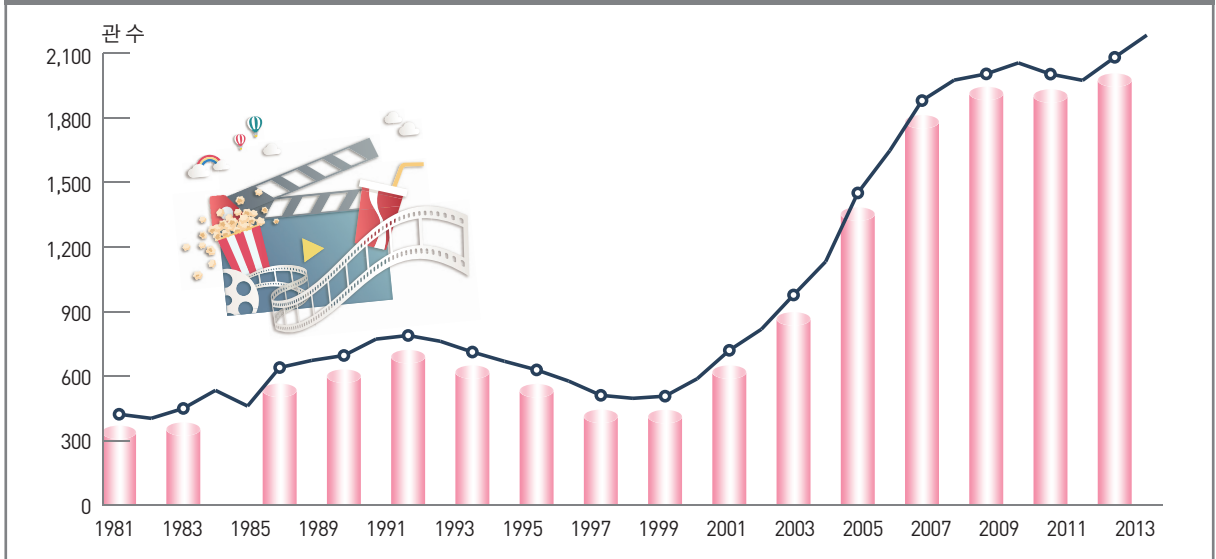


주 : 박물관 통계는 국립·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만 해당되며, 단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과학관은 제외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통계」.

■ 멀티플렉스 형태의 대형 극장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극장 수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스크린 수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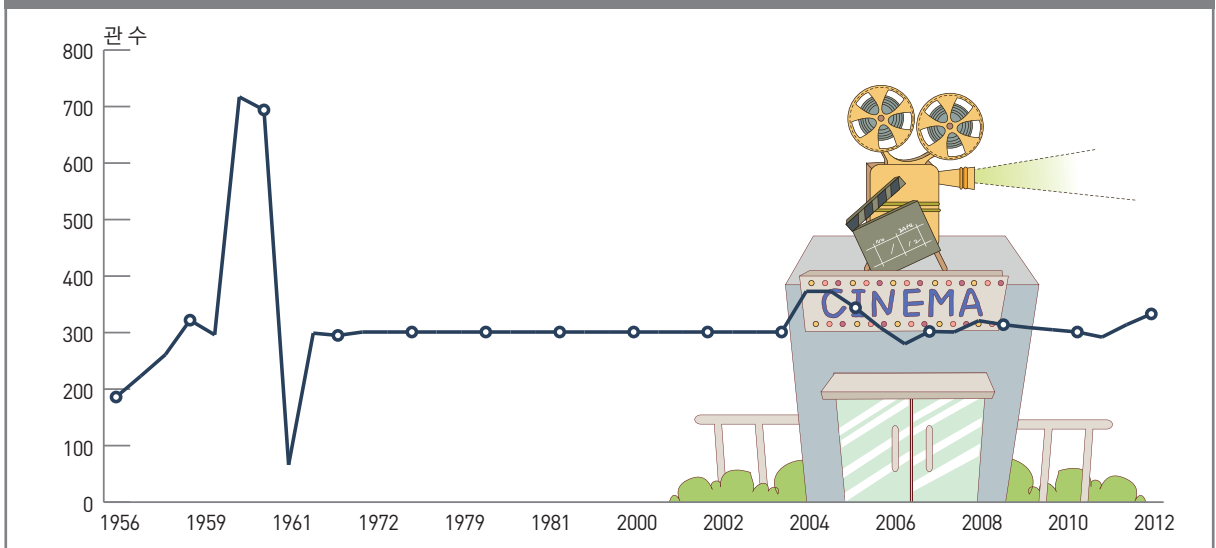
- 한국의 스크린 수는 1981년 423개에서 1990년 789개까지 증가했다가 1998년 507개로 감소하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3년 1,000개, 2008년 2,000개를 넘고, 2013년 현재는 2,184개에 이릅니다
- 극장 수는 1956년 186개였으며, 1971년 717개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이후 1970년대 후반에 갑작스런 감소에 의해 1980년 295개까지 줄었다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스크린 수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극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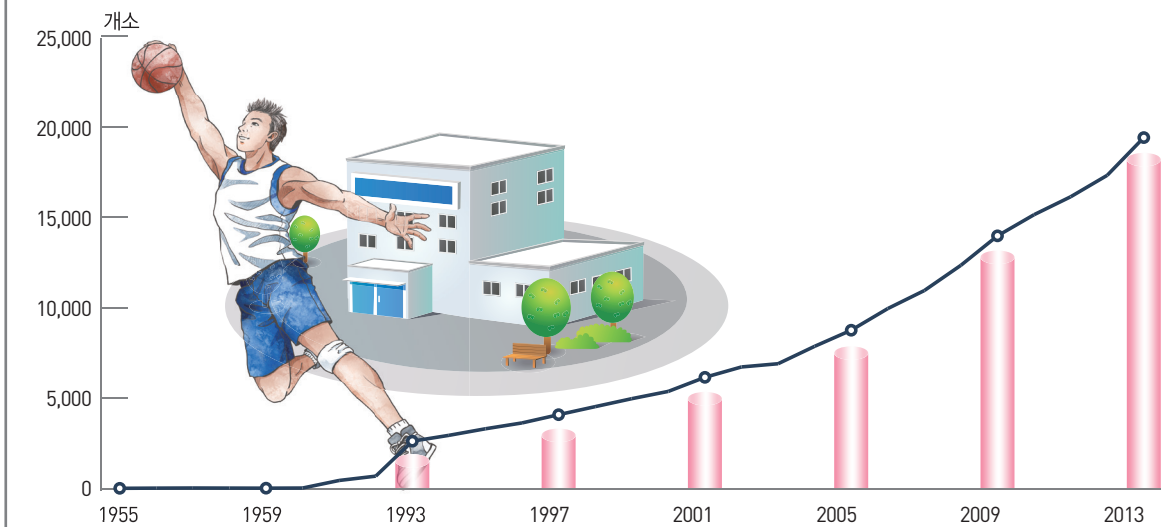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공공 체육시설 수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3년 19,398개가 운영

- 1960년까지 32개에 불과하던 공공체육시설은 1980년대 후반 500개를 넘고, 1993년 2,621개에서 2000년 5,373개로 두 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임
- 2007년 10,000개를 넘는 체육시설 수는 2013년 19,398개가 운영됨

공공체육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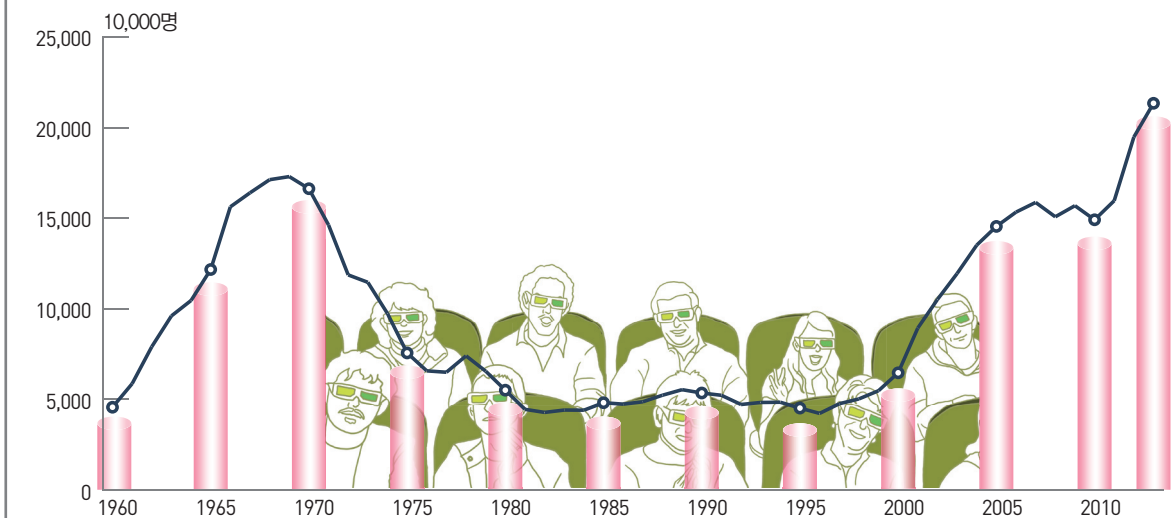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영화 관람자수는 1985년 4,810만 명에서 2013년 2억 1,355만으로 크게 증가

- 영화 관람자 수는 1960년 연간 4,600만 명에서 1969년 연간 1억 7,304만 명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를 시작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5,000만명 내외에 머무름
- 2000년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영화 관람자 수는 2005년 1억 4,552만 명, 2013년에 2억 1,355만 명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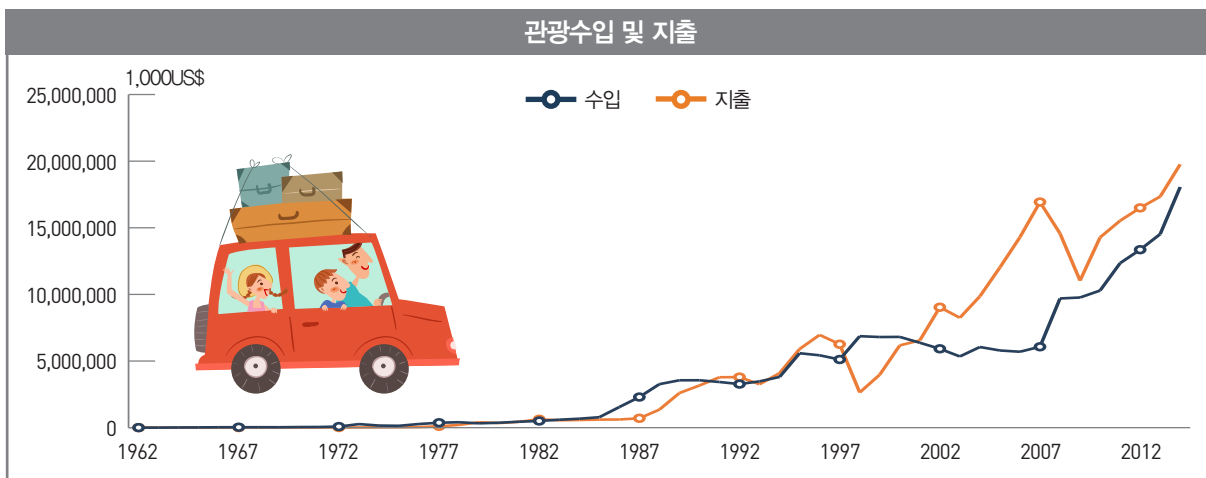
영화 관람자수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4년 관광수입은 약 180억 달러, 관광지출은 약 2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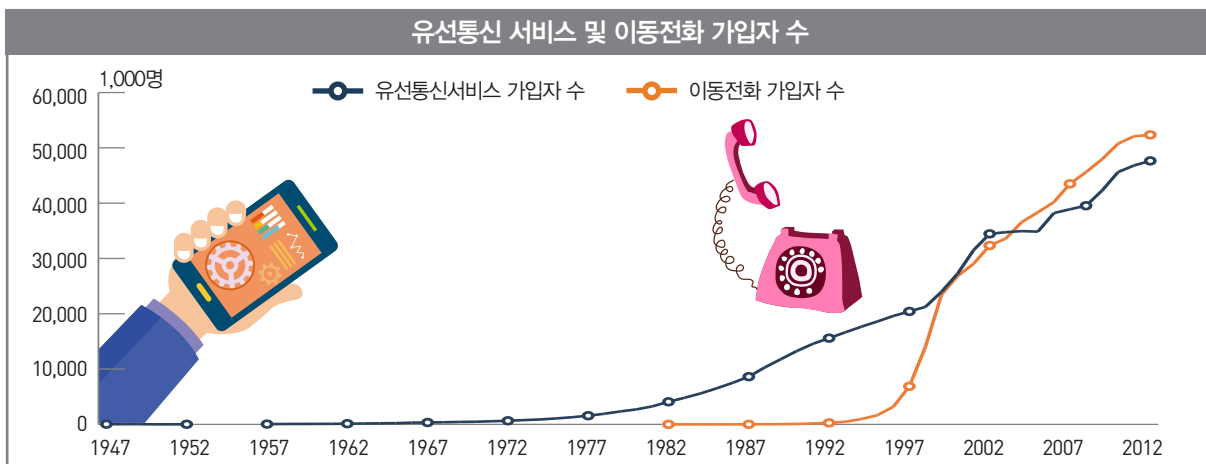
-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은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큰 계기가 되어 이전 7억 달러였던 관광수입이 86년에 15억 달러로 두 배가 되었고, 88년에 다시 33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남
- 관광수입은 2008년부터 다시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014년 관광수입은 180억 달러에 이름
- 1983년 시작된 여행자유화 정책이 1989년 완전 전면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내국인 여행경비는 1988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은 다음 1995년 50억 달러, 2005년 100억 달러를 넘고, 2014년 현재는 200억 달러에 근접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90년대부터 크게 늘어 2012년 약 5,200만 명에 이름

- 유선전화만이 상용화되었던 1997년 이전 전화 가입자는 1947년에 3만 7천명이었고, 전쟁 후 1955년에는 2만 9천명에 불과했지만 1975년 100만 명을 넘어서서 1988년 1,000만 명을 넘었고, 1997년 2,000만 명, 2001년 3,000만 명, 2009년 4,000만 명을 넘어서 2012년 현재 4,764만 명이 유선전화 서비스에 가입
- 이동전화 서비스는 1982년 300명의 가입자가 있었으며, 1999년 2,000만, 2002년 3,000만, 2006년 4천만을 넘어 2012년 현재 전체 한국 인구보다 많은 5,235만의 가입자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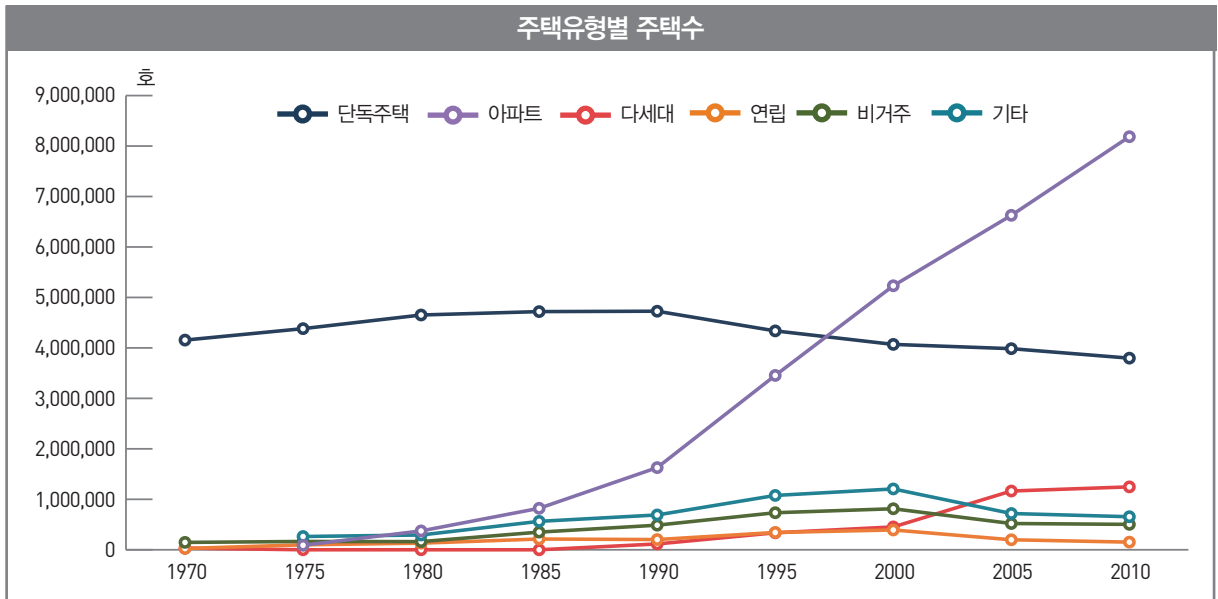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정보화통계집」;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6. 주거

■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줌

- 1970년부터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 수가 430만~480만호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이었지만, 2000년부터는 아파트가 520만호를 넘어서며 이후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음
- 1990년 이후 단독주택의 수는 470만호(1990년)에서 430만호(1995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약 380만호로 줄어듦
-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 1975년 약 9만호에 불과했으나, 2010년 약 820만호로 90배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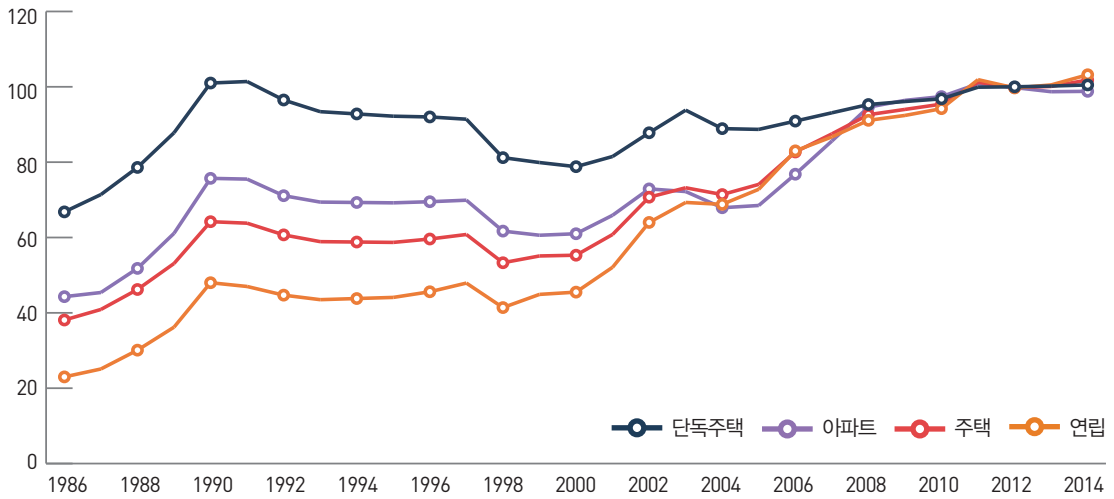


주 : 1) 2005년 부터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수로 산정함. 2000년~2004년은 주택 산정시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산정한 주택수를 사용함(빈집포함)
 2) 시도별 인구는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4) 1970년 자료는 1970 주택총조사 하의 시도주택의 종류별 주요지표에서 독립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각각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변환하여 집계한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11월을 100으로 할 때, 1986년 38.1에서 2014년 101.8로 2.7배 증가

-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을 반영하듯, 1990년에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은 후, 활발한 주택건설의 영향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띠
-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훨씬 가파름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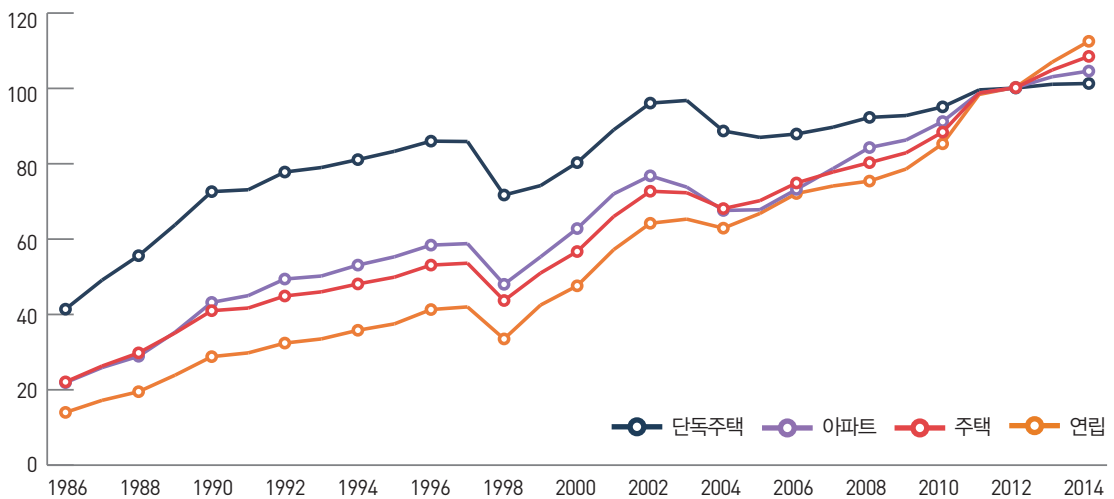


주 : 주택매매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012.11)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003~2014년 각 년 12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002년 각 년 12월.

■ 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1986년부터 관찰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완만해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1986년~2001년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02년~2005년 동안 주택전세가격은 감소되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전세가격에서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함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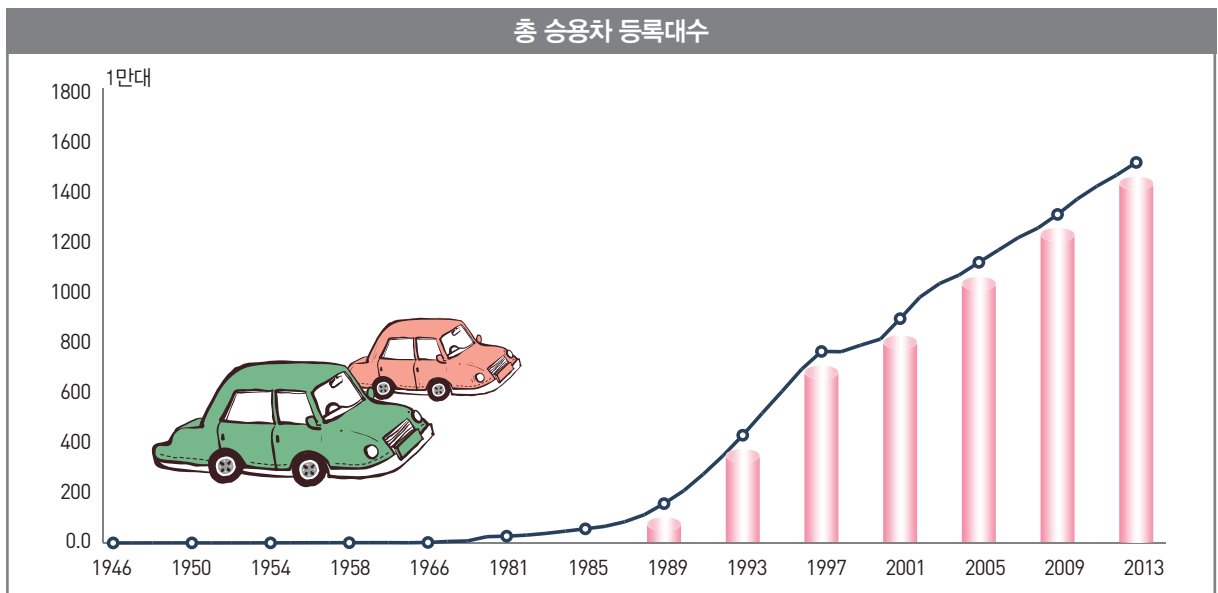


주 : 주택전세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003~2014년 각 년 12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002년 각 년 12월.

7. 교통

■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등록대수는 15,750배 가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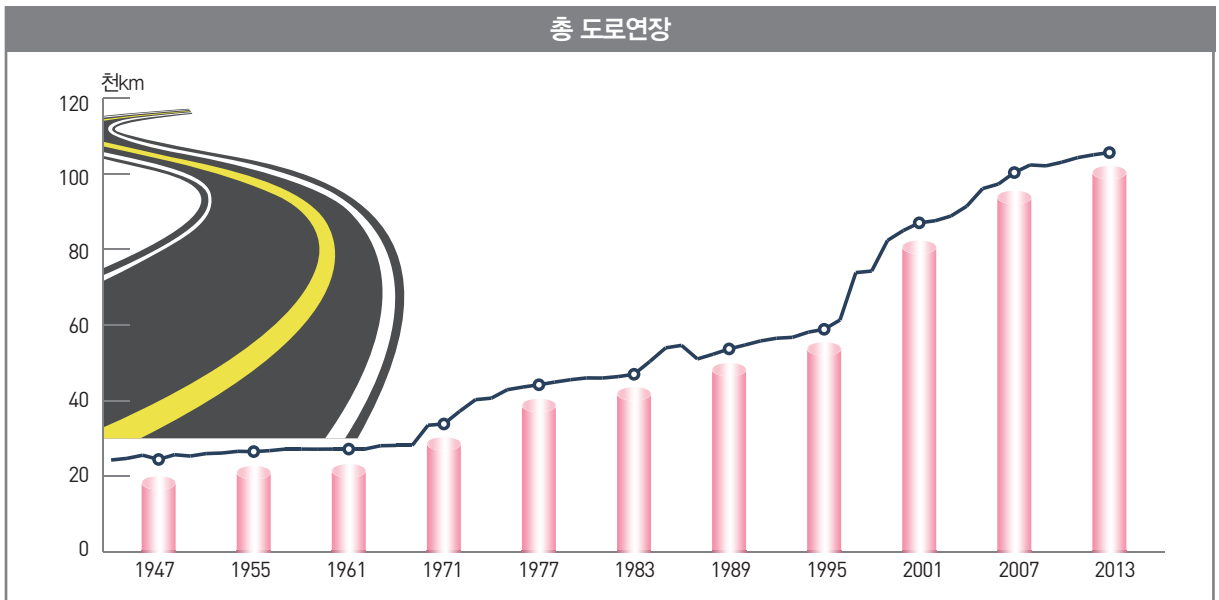
- 해방 직후인 1946년 1천대 가량에 불과했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는 총 1,575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인구 1000명당 312.4대가 되었음
- EU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보급된 나라에 해당함
- 비록 인구 1000명당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에서는 비교 대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1966년~2014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46년~1961년

■ 광복 직전인 1944년의 총 도로연장은 2만 5천km였지만, 2005년에는 10만 6백km를 상회하여 지난 70여년간 4배 이상 증가함

-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으로 계산하면 1980년 1.23km였던 데 비해, 2013년에는 2.12km로 늘어, 이 기간 동안 1.7배 증가
- 국토면적당으로 따져 보면 1km²당 1980년 0.48km에서 2013년 1.06km로 2.2배 증가
- 해방 이후 거의 포장이 되지 않았던 도로들이 2013년에는 82.5%가 포장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도로들이 원활하고 빠른 교통이동이 가능한 쾌적한 인프라로 바뀌었음을 보여줌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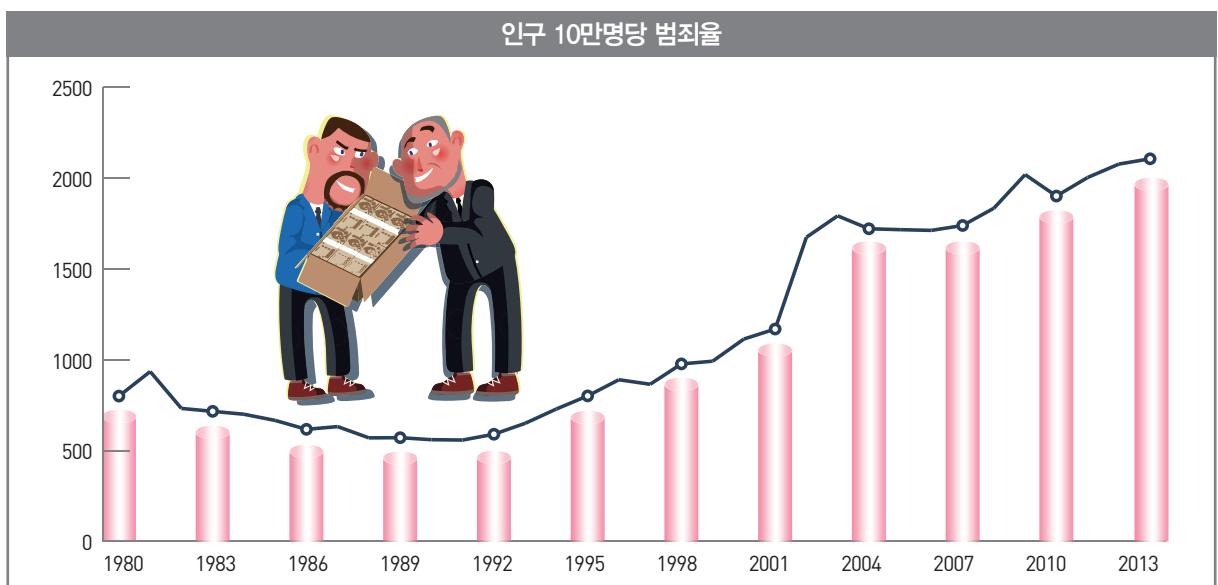
■ 한국인의 평균 통근·통학시간은 1995년 이후 30분 내외로 나타나며, 다소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9.6분에서 2010년 33.1분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통학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28.3분에서 31.5분으로 비슷하게 증가
- 1시간 이상 장시간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995년 통근자의 9.5%에서 2010년 15.6%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통학자중에서도 8.3%에서 13.8%로 증가
- 국제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은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통근에 쓰는 나라임

8. 안전

■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의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의 2,039건으로 2.2배 증가함

-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는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함. 1997년 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범죄율의 증가폭이 커졌고 2002년과 2003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
- 주요 형사범을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로 살펴보면, 1980년에 80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06건으로 증가
- 유형별 통계가 가능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10만명당 251건(2000년)에서 579건(2013년)으로 2.3배 늘었고, 폭행은 같은 기간 내에 35.8건에서 251건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강간과 성폭력은 21.7건에서 53.6건으로 2.47배 증가함. 반면에 강도는 11.4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살인은 2건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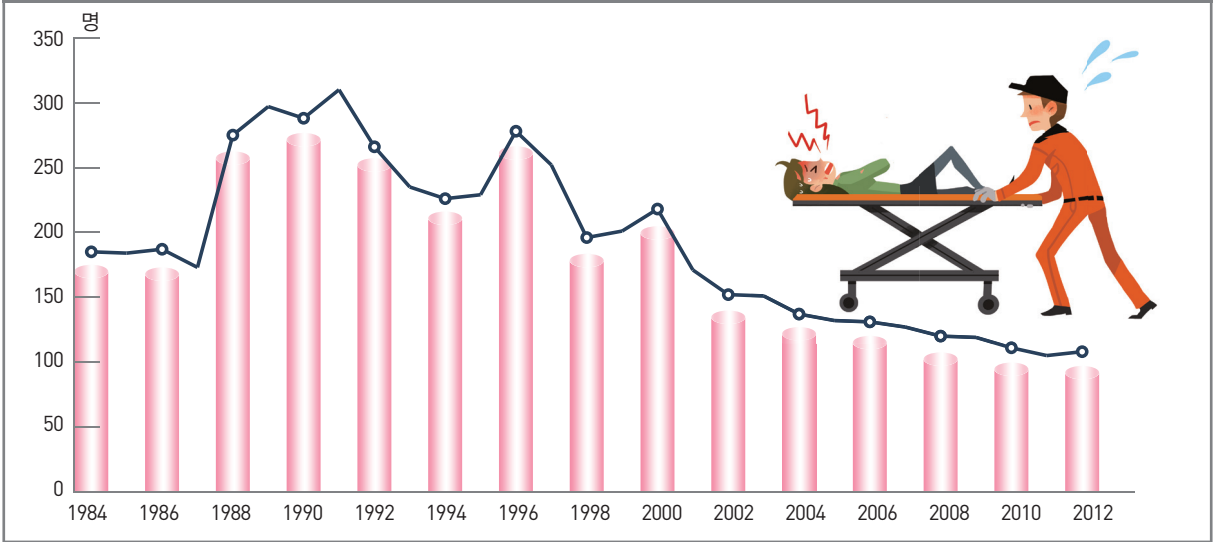


주 : 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건수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측정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0년에 28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으나, 다행히도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0만명당 101명 수준으로 떨어짐
- 그러나 한국의 도로교통 사망자수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음.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나타남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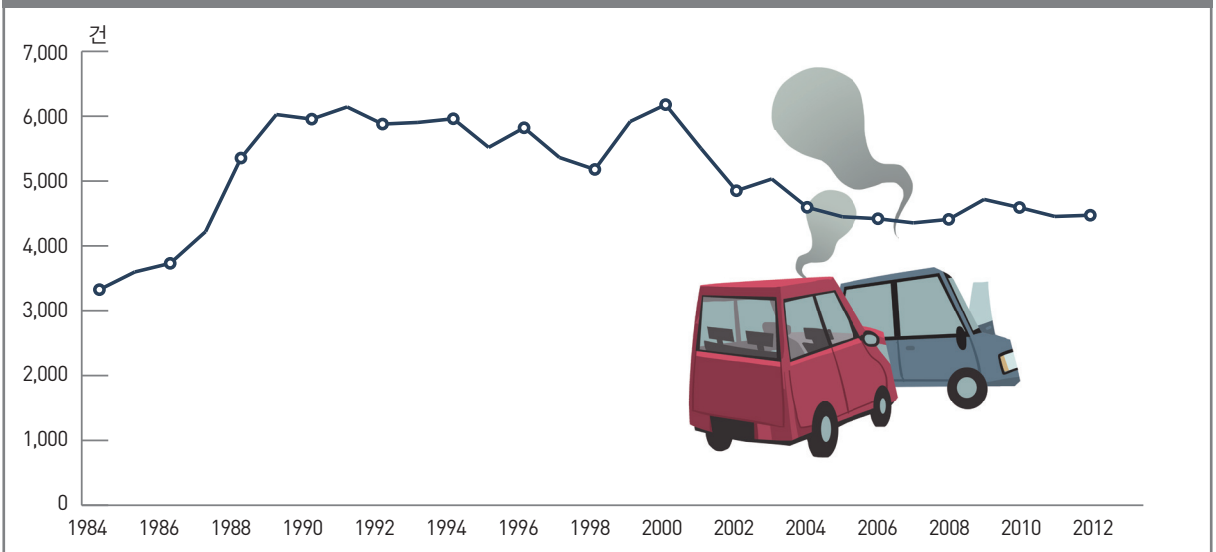


주 : 1) 인구 10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0

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20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주 :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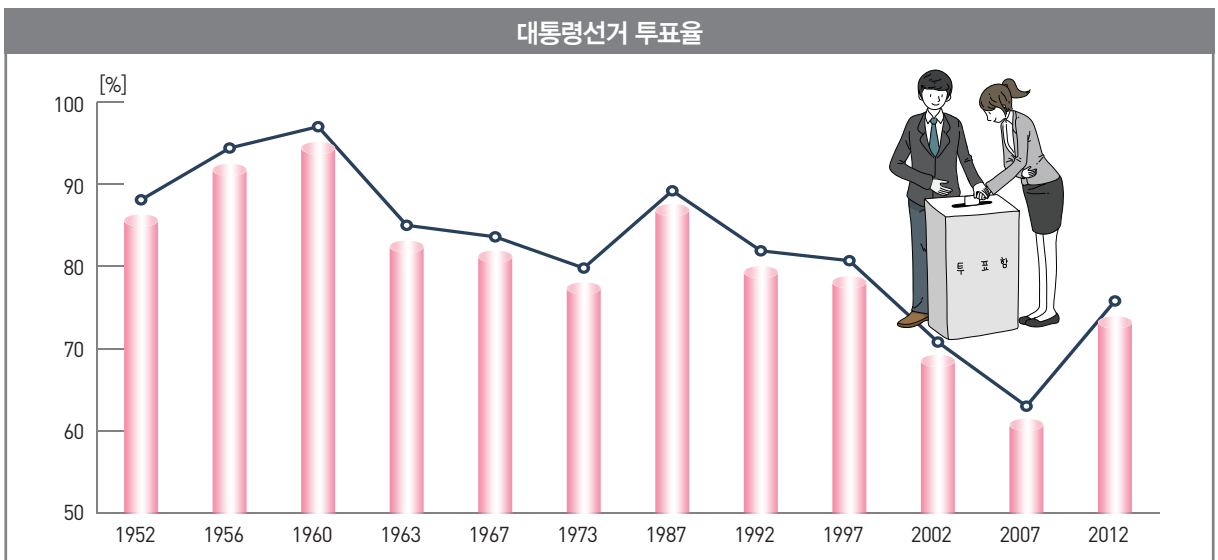
2)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포함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20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9.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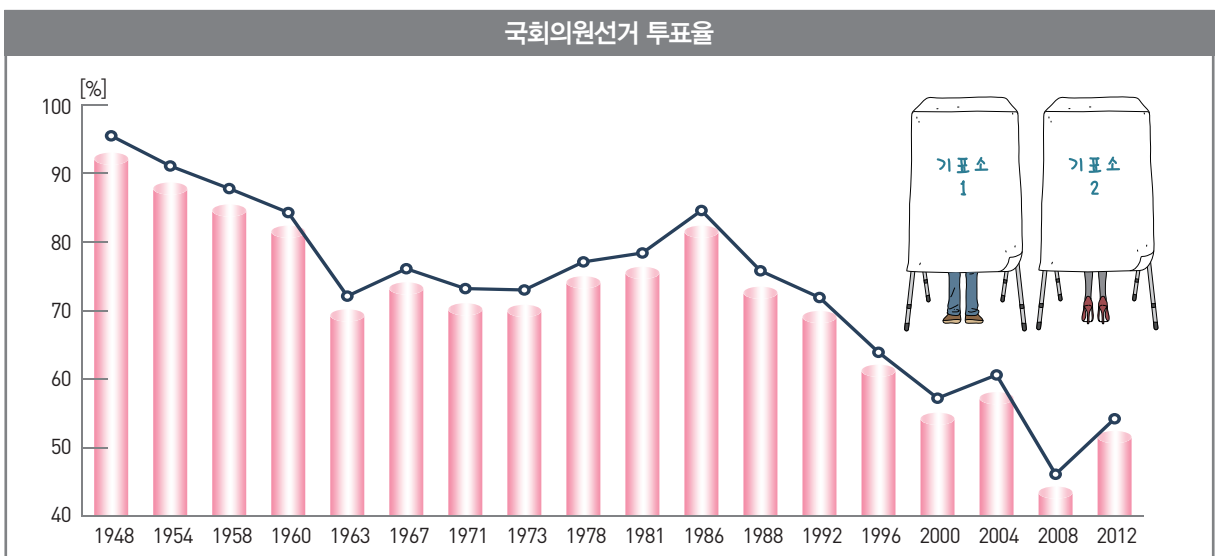
■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다소 높아지는 추세

- 한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부터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46.1%에서 54.2%)와 대통령선거(63.0%에서 75.8%) 모두 투표율이 높아졌음
- 한국의 투표율은 일본과 프랑스와 비슷하고 호주, 스웨덴,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30대 이후 연령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짐



주 :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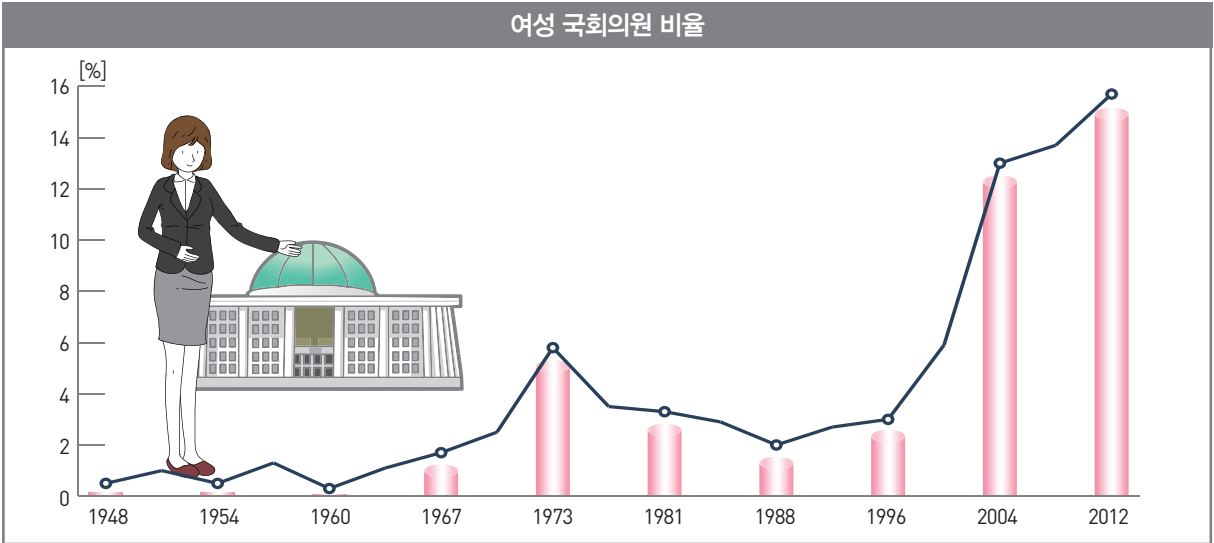


주 :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48년 초대국회 당시 1명이었으나 현재는 47명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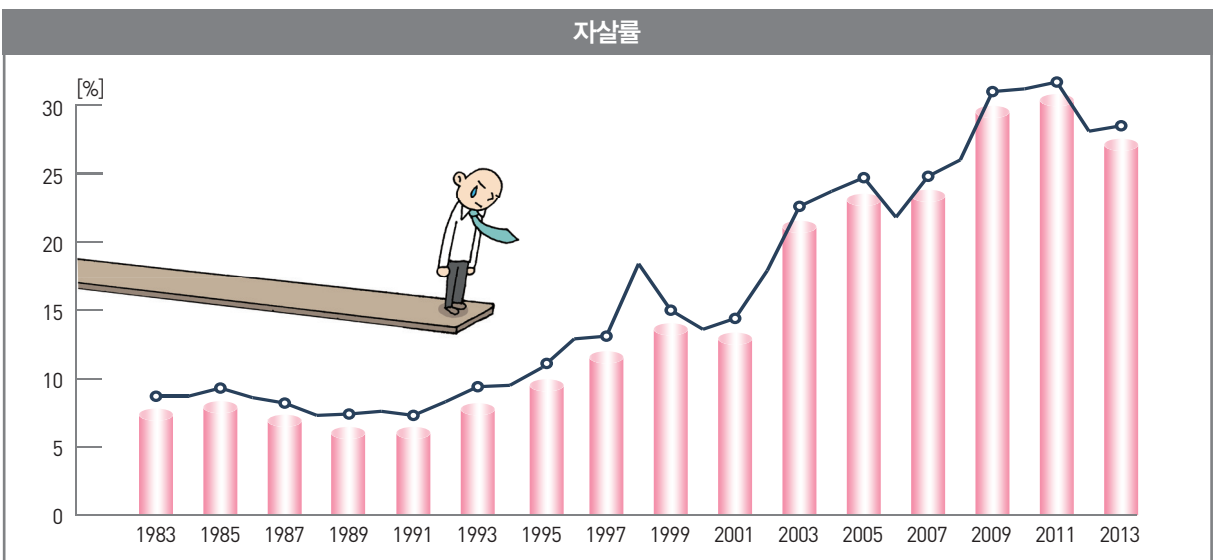
-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어섬
- 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지방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 당 8.7명에서 2013년도 28.5명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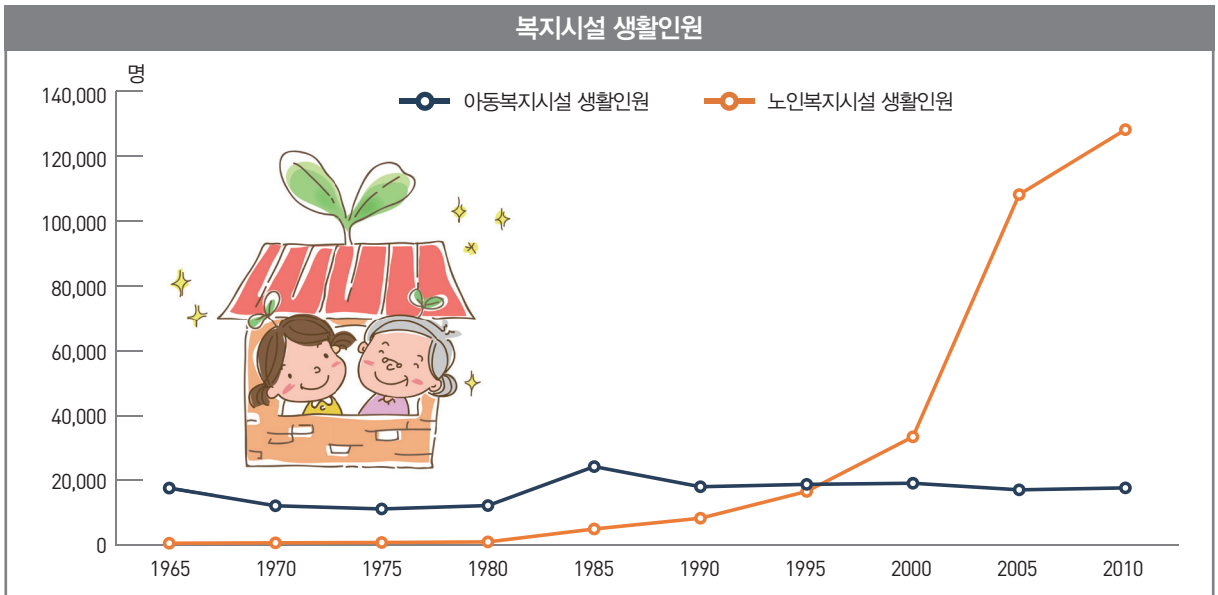
- 1980년대까지 10만명당 10인 이하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자살률은 1990년대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약 29명에 이르며,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음



주 : 1)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로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은 크게 증가

-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인원은 1965년 17,659명에서 1975년 11,228명까지 줄었다가 1985년 24,284명까지 늘었지만 다시 감소해서 2013년 17,720명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이 있음
- 1985년 5,000명이었던 복지시설 노인의 수는 1997년 10,000명을 넘었고, 2004년 20,000명을 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 이후 급증해서 2013년 현재 12만 8천 여명의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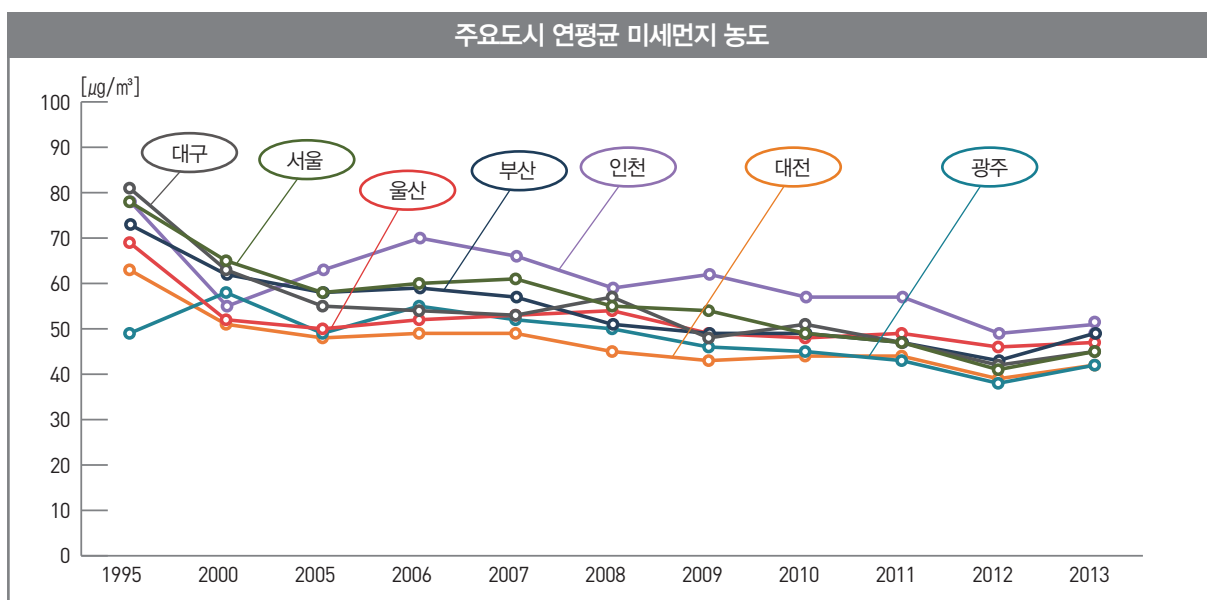


III 환경부문

1. 생활환경과 오염

■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10)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환경기준 ($50\mu\text{g}/\text{m}^3$)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

-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베이징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농도($47\mu\text{g}/\text{m}^3$)는 프랑스 파리($27\mu\text{g}/\text{m}^3$)나 영국 런던($31\mu\text{g}/\text{m}^3$)에 비하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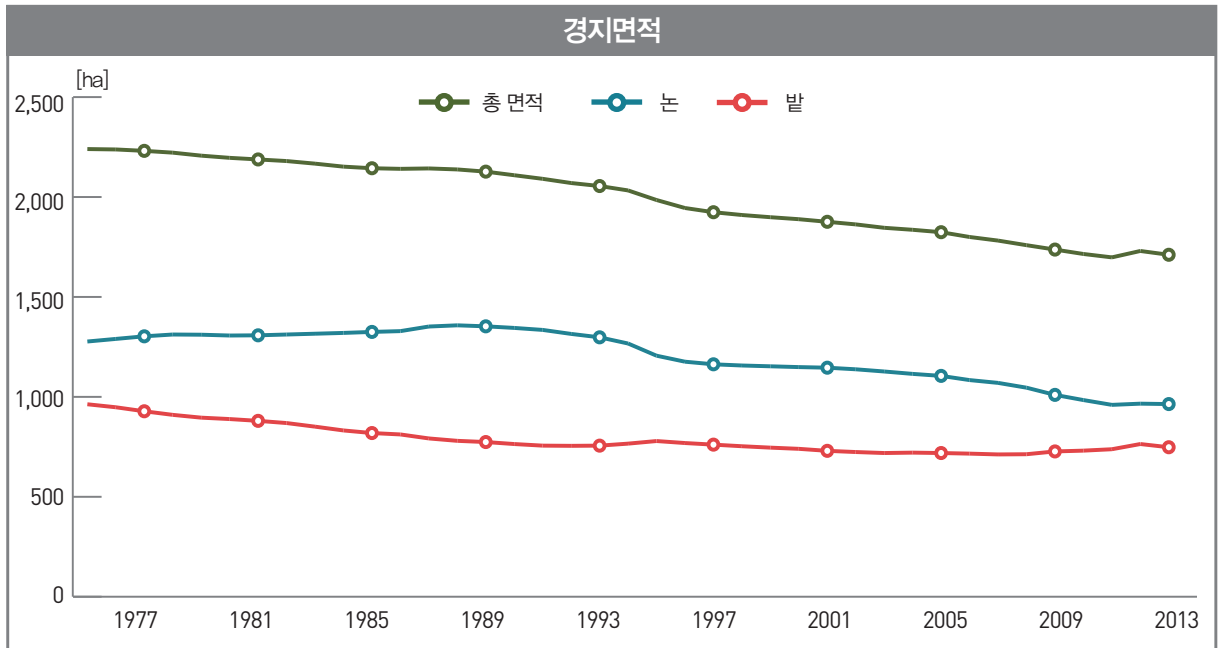


주 :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출처 / 환경부「2013 대기환경연보」, 2014.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 경지면적은 2002년 188.9만 ha에서 2014년 169.1만 ha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경지면적의 순감소 면적은 19.0만 ha임
- 논·밭의 경지면적은 2002년 113.8만 ha에서 2014년 93.4만 ha로 줄어들었고, 밭의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72.4만 ha에서 75.7만 ha로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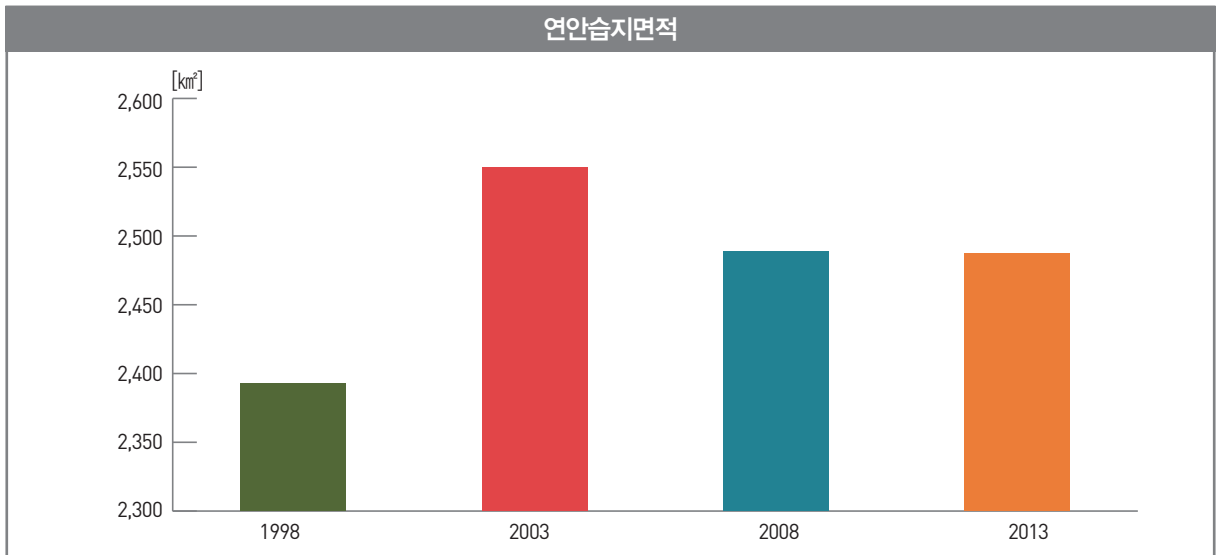
주 : 경지면적은 경작적합지 및 영구경작지의 면적임

출처 / 1) FAO「<http://faostat3.fao.org>」

2) OECD「<http://stat.oecd.org>」, 2014.9.

■ 갯벌면적은 2013년 현재 2,487.2km²로 국토면적(99,828km²)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 한국의 람사르 지정 습지면적은 2013년 현재 177km²임
- 호주는 람사르협약 최초 가입국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지정 습지를 가진 국가로 81,192km²에 달하는 총 65개의 습지를 가지고 있음



- 주 : 1) 연안습지지역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1998년 자료는 1987년 이후 상설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1/75,000 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3) 200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4) 2008년 자료는 1/5000의 해안선 조사 측량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사유가 발생.
 5)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 출처 / 1)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각 년도
 2) 해양환경관리공단, 「전국갯벌면적조사」, 각 년도